

차별에 울던 비인기 종목의 희망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여자 카바디가 부동켜 안고 울었다. 패배 아픔이 아닌 비인기 종목이란 차별에서 오는 서러움이 났다.

30일 송도글로벌체육관에서 열린 카바디 여자 예선 A조 경기에서 한국은 인도에 26-45로 패하며 예선 탈락했다. 강호 인도를 맞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태극양자들은 한없이 서러웠다.

주장 조현아(26·해태칼)는 “카바디를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왜 이 종목이 아시아안게임 정식종목이냐고 물을 때마다 속상하다”고 말했다. 조현아에게 카바디는 언제나 아픈 손가락이었다. 아시아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누렸던 기쁨도 잠시, 조현아는 합숙 소집을 받고 고향인 울산에서 부산으로 짐을 꾸려 내려갔지만 대한체육회 사정으로 갑자기 훈련이 취소돼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훈련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뒀던 터라 생계를 위해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카바디로만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선수들이 백화점과 공장에서 일을 한다”며 “전담 연습장이 없어서 대학의 유도장을 임대해 연습했지만 유도 경기가 있을 때는 연습을 못 해서 눈치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공수도가 겪는 비인기 종목의 설움도 비슷하다. 한국에 소개된 지 50~60년 가까이 됐지만 회장단의 비리 문제로 제대로 된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를 참가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전국체전에 시범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이마저도 다시 보류돼 공수도

본선행 좌절된 여자 카바디 선수 임대 훈련장서 눈치 보면서 피땀 “정식종목 맞냐고 물을 때 서러워”

회장단 비리 문제 뒤엎힌 공수도 전훈 무산 등 고난에도 금빛 총만 “열심히 뛴게요, 응원해주세요”

국가대표팀의 마음을 허탈하게 했다.

손영익 공수도 인천아시아안게임 조정관은 “공수도에 대한 관심 부족이 열악한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선수와 심판들이 자비를 들여 경기에 출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카바디 여자 대표팀은 기존 실업팀·클럽팀 등이 주축이 돼 보급되고 있는데, 최근 인천카바디협회도 생겨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4년 전 광저우 아시아안게임에서 동메달을 3개나 따낸 공수도는 최근 이란 코치에게서 전수받은 기술을 토대로 인천아시아안게임에서 남자 개인 -60kg의 이지환, 여자 개인 -55kg의 안태은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운영학 카바디 인천아시아안게임 조정관은 “여자 대표팀이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대회에 출전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최강인 인도를 상대로 의미있는 점수를 따낸 것에 희망을 봤다”며 “카바디의 매력을 느껴 힘든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는 여자 대표팀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진 기자 jhj@kihoilbo.co.kr



레슬링 정지현 금메달 포효

인천 도원실내체육관에서 30일 오후 열린 인천아시아안게임 레슬링 남자 71kg급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정지현이 태극기를 들고 뛰고 있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시체육회 하지만, AG 요트 2연패

대회 폐막까지 4일을 남긴 인천아시아안게임에서 한국의 금빛 빛이 매섭게 일고 있다.

30일 한국은 요트에서 금 4개를 추가하는 등 레슬링, 정구, 볼링 등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금 54·은 55·동 60개(오후 10시 현재)로 종합 2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이 금 125·은 79·동 61개로 1위를 굳게 지켰고, 3위 일본은 금 37·은 54·동 55개로 한국에 뒤졌다. 북한은 금 8·은 10·동 11개로 6위에 랭크됐다.

이날 한국 요트는 4개의 금맥을 냈다. '14세 소년' 박성빈(대전서중)이 인천AG 한국 선수단의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리는 등 요트 경기 마지막 날 기세를 떨쳤다.

박성빈은 인천 왕산요트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아시아안게임 요트 남자 유티미스트급에서 우승했다. 김창주(29)·김지훈(29)조가 요트 남자 470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하지민(25·인천시체육회)도 아시아안게임 2연패를

달성하며 금빛 감각을 누렸다. 김근수(34)·송민재(34·이상 부안군청)조는 오후 호비16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레슬링 대표팀의 말형 정지현(31·울산남구청)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그레코로만형 71kg급 결승전에서 정지현은 탈스드존 투르디예프(우즈베키스탄)를 테크니컬로 꺾고 우승했다.

김보미(24·안성시청)가 열우물테니스장에서 열린 정구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천후이를 4-1로 제압하며 시상대 맨 위에 섰고, 남자 단식 김형준(24·인천시청)도 금메달을 차지했다. 볼링은 이나영(28·대전시청)이 여자 개인종합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3관왕에 등극했다.

한국은 1일 양궁과 육상, 태권도, 레슬링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특별취재반>

폐회식, 어떤 방향으로 꾸밀까 ▶ 2



남자탁구 단체전, 중국에 막혀 ▲ 3

북한 축구·탁구선수 열전 현장 ▶ 16

AG 최우수선수 후보 8명 선정 ▶ 17

▶ 인천AG 국가별 종합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메달합계
1	대한민국	54	55	60	169
2	중국	125	79	61	265
3	일본	37	54	55	146
4	카자흐스탄	15	16	25	56
5	이란	14	11	10	35
6	북한	8	10	11	29
7	타이완	8	8	14	30
8	태국	8	6	21	35
9	카타르	8	0	3	11
10	인도	6	8	32	46

조직위 해체→인력 재배치 실·국 확대 방안 관철 시급

시 “안행부와 조직개편 논의 속도”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에 따른 인천시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아시아안게임·장애인아시아안게임 종료 후 해산되는 조직위원회 인력 재배치와 유 시장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편안 확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0일 시에 따르면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조만간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시 헌안 건의 사항 진행 여부를 확정지를 계획이다. 당초 유정복 시장이 직접 정중섭 안행부 장관을 면담키로 했지만 정 장관 일정으로 면담 날짜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자리를 통해 지난 8월 인천을 방문한 정 장관에게 건의했던 인천지역 헌안 이행 필요성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조직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당장 오는 10월 25일부터 인천AG·APG 조직위가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파견 복귀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 확대 방안을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양 조직위와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에 소속된 공무원이 400여 명으로 시 전체 직원의 13% 가량이다. 시는 10월 24일 이후부터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파견 인원 복귀를 준비 중이다. 따라서 현재 시 본청 내 11개 실·국을 현실에 맞게 14개로 늘려 공무원 정원기준을 확대하는 건의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처럼 시 내부에서 조직 개편 작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체적인 개편안 요구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거의 전 부서에서 각각 조직 신설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적지 않은 구상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시 조직 개편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 11일로 예정된 제22회 정례회 전까지는 어떻게든 안행부와 논의가 끝나야 한다.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시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안행부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급한 조직 개편과 파견 복귀 인원 재배치를 위해서는 안행부로부터 어떻게든 답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여야, 세월호법 극적 타결... 단원고 유가족은 거부 입장

30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67일 만이다.

여야는 지난 8월 19일 원내대표 합의로 작성한 2차 합의안을 유지하면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사는 특별 후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후보 유가족 동의에 대해서는 유가족 참여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을 10월 말까지 처리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석탄광
 김홍기의
 기호만평
 김과 은은 커야 하는데...
 하다왔어 귀라도 커야...
 김과 은은은 대담하게 태극을 연방 땀수 없애

Diversity Pocheon 무궁무진 포천

노래하는 익새꽃으로 퍼니는 가을여행

Sanjung Lake 산정호수

제 18회 산정호수 명성산

2014.10.11 - 2014.10.12
 산·정·호·수 및 명·성·산 일원

익새꽃 축제

주 최 | 포천시 주 관 | 산정호수 명성산 익새꽃 축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 http://tour.pcs21.net
 문의처 | 031-538-2067~9 주요행사 | 개막식, 무대공연, 홍보관, 체험관, 판매관, 포토존, 아웃도어 체험관, 길거리체험, 익새꽃트래킹대회, 부대행사 등



오래 기다렸다... 오늘 '금빛' 연기 보여주려다

사상 첫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 금메달에 도전하는 손연재가 결전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금빛 머무리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손연재, 오늘부터 남동체육관서 경기 경쟁자 中 덩썬웨 누르면 금메달 승산

‘체조 요정’ 손연재(연세대)가 세계선수권대회 후프 동메달, 개인종합 4위 등의 여세를 인천에서도 물고 갈 태세다.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2014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후프 동메달, 개인종합 4위로 물오른 실력을 뽐낸 손연재는 지난 28일 귀국해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곧바로 입성, 대회를 준비해 왔다.

손연재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리듬체조는 1일부터 이틀에 걸쳐 남동체육관에서 펼쳐진다.

한국은 리듬체조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손연재가 따 주길 고대하고 있다.

현재 손연재의 컨디션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연재는 터키 현지시간으로 지난 22~26일 열린 이즈미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후프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 주인공이 됐다.

또 볼 5위, 곤봉 4위, 리본 5위 등 전 종목에서 5위 이내 성적을 올렸고, 4가지 종목을 아우르는 개인종합에서도 세계 최정상 선수인 야나 쿠드랴체바, 마르가리타 마문(이상 러시아), 안나 리자티노바(우크라이나) 등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일단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확하려면 중국의 덩썬웨 등 경쟁자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덩썬웨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건지지는 못했지만, 개인종합 5위에 오르며 손연재를 턱밑까지 쫓아왔던 인물이다.

점수 차도 손연재 70.933점, 덩썬웨 69.766점으로 1.167점 차밖에 나지 않아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전문가들은 손연재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보여준 기량만 유지한다면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취재반〉

하나된 아시아, 하나의 도시 기억하다

4일 7시 AG 폐회식... 다문화가정 합창 공연 오프닝 차기 개최지 인도네시아에 대회기 이양하며 마무리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미를 장식할 폐회식 내용이 배일을 벗었다. 19일간의 열전을 모두 끝내고 오는 4일 막을 내리는 아시안게임 폐회식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아시아는 이제 인천을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폐회식은 오후 6시 15분 평화장 작가유제 수상자의 공연을 시작으로 40여 분간의 ‘맞이 행사’와 2시간 30분의 ‘본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오후 7시 폐회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영상이 상영되면, 다문화 가정으로 꾸려진 레인보우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이 이어진다.

이러 국립무용단의 공연과 대회 경기 하이라이트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고, 국립국악원·국기원 등이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축제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알린다. 45개 참가국 선수단은 개최식 때와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입장해 폐회식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특히 대회 기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감독과 코치, 스태프들의 기쁨과 환희, 눈물 등이 담긴 특별 영상이 이어지고 대회 최우수선수(MVP)에게 주는 삼성 MVP 시상식이 뒤를 잇는다. 김영수 대회 조직위원장과 앞서

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의 공식 연설 및 폐회 선언이 끝나면 대회기가 내려지고 다음 대회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장에게 대회기가 이양된다. 차기 개최지인 인도네시아는 준비한 축하공연으로 2018자카르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한다. 이후 16일간 주경기장을 밝혔던 성화가 꺼지면 모든 폐막 공식 행사는 마무리된다. 성화 소화 후 축하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박병이 출연한다. 폐회식 총연출을 맡은 장진 감독은 “대회 기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떠오르고 아시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 인천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떠올릴 수 있는 폐회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임권택 AG총감독

“개회식 한류 잔치 지적 동의 못해”

인터뷰 장진 AG개·폐막식 총연출



IM Kwon Taek Executive Director

“한류스타 단 2명 등장... 부정적 언론 보도 서운 성화 최종 주자 배우 이영애 출연은 조직위 결정”

“개·폐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천시민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총연출을 맡은 장진(44)감독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사진) 30일 장 감독은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안게임 폐회식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편파적 언론보도로 개회식에 참여한 인천시민 1천500명의 노력이 빛을 받지 못했다”며 “고생한 시민들께 죄송스럽다”고 했다. 대회 개회식 직후 쏟아졌던 내외신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애꿎은 인천 시민만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회식이 한류스타 일색이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시 한류스타는 단 2명만이

등장했는데, 마치 한류 공연이 전부였던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 서운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성화 최종 주자로 선정되며 논란이 된 배우 이영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장 감독은 “성화 최종 주자는 총감독·총연출이 임의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직위원회 임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애 선정 배경에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입김이 일부 작용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장 감독은 “총연출자로서 성화 최종 주자에 어린이 두 명에 초점을 맞췄는데 방송 중계를 통해 방영되는 과정에서 포커스가 이영애로 바뀌었다”며 “중계팀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제29회 안산시민의 날

꿈꾸는 도시 안산



-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 |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도시** | 시민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경제력과 권력의 크기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도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고향으로 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세계적인 환경·문화 생태도시** | 환경문제를 가진 공단 배후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이 살아있는 도시, 시민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문화·예술·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서민이 살기 좋은 일자리·복지도시** |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튼튼한 복지로 삶의 걱정을 덜어주는 도시, 창조와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과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자 탁구 단체전 ‘銀’... 사각 테이블 위 중국의 벽은 높았다

주세혁, 1시간 1분간 숨막히는 접전 끝에 무너져
이정우·정상은 차례로 패배... 세트스코어 0대 3

24년 만에 남자탁구 금메달을 노렸던 한국 탁구대표팀이 만리장성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유남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탁구 남자대표팀은 30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아시아게임 남자탁구 단체전 중국과 결승전을 치렀지만 0-3으로 완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1986년 서울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8회 연속 남자 단체 결승전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번번히 중국에 막혀 1990년 베이징 대회 우승 이후 남자 단체전 정상을 탈환하지 못하는 등 6회 연속 은메달이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이날 주세혁(삼성생명·세계랭킹 17위)이 나선 첫 경기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다.
1시간 1분 동안 진행된 대결은 매 세트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접전이 이어졌다.

주세혁은 마룽(3위)에 1~2세트를 9-11로 내렸지만, 3세트서 12-10으로 승리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4세트에서도 계속된 듀스로 마룽을 괴롭혔지만 막판 마룽의 공격에 연속 실점하며 15-17로 패하며 1-3(9-11, 9-11, 12-10, 15-17)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정우(울산시탁구협회·35위)와 정상은(삼성생명·38위) 등이 차례로 나와 세계 최강 쉬신(1위)과 장지커(4위)와 맞섰지만, 기량 차이를 넘지 못하고 각각 게임스코어 0-3으로 패배, 2위로 단체전을 마감했다.
주세혁은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오늘 단체전을 잊고 내일 더욱 분발해 개인 종목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반〉



30일 오후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탁구 남자 단체 결승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 주세혁(왼쪽)이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한편 정상은 선수는 공격에 실패하자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30일 오후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탁구 남자 단체 결승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 주세혁(왼쪽)이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한편 정상은 선수는 공격에 실패하자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특독 인터뷰

“함께 땀 흘린 사람에게 감사”

김영남 다이빙 남 싱크로나이즈
고교 듀오 스프링보드 ‘銅’
서로 격려하며 최고의 성과



“은메달에 이어 동메달을 따게 돼 기쁩니다. (우)하람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김영남(18·인천체고·사진 오른쪽)은 30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다이빙 남자 싱크로나이즈 3m 스프링보드 시상식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김영남-우하람(16·부산체고)은 이날 수영 다이빙 남자 싱크로나이즈 3m 스프링보드에서 6차 시기 합계 399.09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날 10m 플랫폼에서도 2위에 올랐다.
김영남은 먼저 “함께 해준 하람이에게 고맙다”며 “우리가 국가대

표로 메달을 딴 것은 선배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람이와 함께 우리는 처음에 많이 힘들었다”며 “그래도 서로 격려하며 힘을 냈고 쉬는 시간에도 웃으면서 용기를 주고 받으며 호흡을 맞추고 경험을 쌓았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전지희 탁구 혼합복식 8강 안착

태국과 맞대결서 3대 1 승
오늘 일본 대표팀과 격전

인천 유일 탁구실업팀인 포스코 에너지의 전지희(22)가 김민석(KGC인삼공사)과 조를 이룬 혼합복식에서 8강에 진출했다.
전지희·김민석 조는 30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혼합복식 16강전에서 태국의 파다사 탄베리아베차쿨, 수타시니 사랍타 붓 조를 게임 스코어 3-1(7-11, 11-7, 11-9, 11-6)로 역전승했다.
1일 펼쳐지는 8강전은 일본의 니와 고키와 히라노 사야카 조를 상대로 준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날 태국팀은 몇 수 아래로 평가받는 상대였다.
하지만 한국이 1세트를 7-11로

저 초반 경기 분위기를 어렵게 했다.
그러나 2세트 중반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전지희·김민석은 11-7로 2세트를 가져오며 분위기를 바꿨다.
탄력을 받은 전지희·김민석은 3세트 11-9, 4세트 11-6으로 잇따라 승리하며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팀은 남자복식 32강전에서 이정우·김민석 조가 콩페트·파타 폰(라오스) 조를 3-0(11-2, 11-4, 11-6), 김동현·정상은 조가 알하자이·알 수레이피(카타르) 조를 3-0(11-3, 11-8, 11-5)으로 각각 이기고 16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남북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혼합복식 16강전에서 이정우·양하은 조는 북한의 김혁봉·김정조에게 1-3(8-11, 13-11, 4-11, 7-11)으로 패했다.

〈특별취재반〉

이나영 金·金·金... 대표팀 첫 3관왕

볼링 여자 개인종합 우승
출전 전 종목 메달 ‘기염’

인천아시아게임 한국대표팀에서 첫 3관왕이 나왔다.
주인공은 볼링 여자 개인종합에서 우승한 이나영(대전시청)이다.
이나영은 이번 대회 2·3인조에서 동료와 금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30일 안양 호계체육관 볼링장에서 열린 여자 5인조 경기에서 총 5전 132점(평균 213.83점)을 기록, 신리

제인(말레이시아·5전95점)을 따돌리고 종합 1위에 올랐다.
볼링 개인종합은 개인전과 2·3·5인조 경기에서 기록한 개인별 합산 성적으로 순위를 가린다.
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의 첫 3관왕으로 이름을 올린 그는 개인전 동메달과 이날 5인조 은메달을 포함해 자신이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에서 1전272점을 얻어 한국 볼링대표팀에서 유일하게 동메달을 수확한 이나영은 손연희(용인시청)와 함께 출전한 여자 2인조에서 1전243점을 따내 우승을 합작했고, 이어 3인조에서는 1전361점을 기록해 손연희·정다운(장원시청)과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5인조에서 1전256점을 보태 개인종합에서 정상에 올라 한국볼링의 위상을 과시했다.
한편, 한국은 2002년 부산대회 김수경, 2006년 도하대회 최진아, 2010년 광저우대회 황선옥(류서연으로 개명) 등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여자 개인종합 우승자를 배출했다.

〈특별취재반〉

“응원해주신 관중 보며 기뻐”

김형준 男 정구 단식
인도네시아 선수 4대 0 제압
압도적 기량... 금메달 수확



“금메달로 인해 국민들이 (정구를)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형준(24·이천시청)은 30일 인천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AG 정구 남자 단식 결승전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김형준은 결승전에서 쿠스타르안도(인도네시아)를 게임스코어 4-0(4-2 4-0 4-2 4-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13분 만에 경기가 끝날 정도로 압도적 승리였다.
김형준은 경기 직후 “우선 너무 기쁘고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얼른 부모님과 감독님을 만나고 싶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형준은 “준결승전이 사실상 결승전이었다”며 “좋은 선배와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인기 종목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관심이 많았다”며 “직접 관람하게 되면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정구”라고 했다.

〈특별취재반〉

인천 소속 선수들 맹활약 韓 요트 대표팀 ‘골드 러시’

‘한국 요트의 대들보’ 하지민(인천시체육회)이 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 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민은 30일 왕산요트경기장에서 마무리된 인천아시아게임 요트 남자 레이저급에서 별점 합계 17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민은 1·2차 레이스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하며 주춤했으나, 3~5차 레이스에서 1위에 올랐고 다시 9·10차 레이스를 1위로 장식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11차 레이스에서는 3위로 처졌으나 마지막 12차 레이스에서 다시 1위에 올라 정상을 지켰다.
요트 남자 470급에 출전한 김창주·김지훈(인천시체육회) 조도 금메달 대열에 합류했다.
김창주·김지훈은 요트 남자 470급에서 10차 레이스까지 별점 20점을 기록해 도이 가스도·이마부라 기미히코(일본)조에 전날까지 1점 차로 뒤졌다. 그러나 마지막 날

11차 레이스에서 일본 팀이 4위에 그친 사이 1위를 차지하며 뒤집기에 성공했다.
이어 12차 레이스에서는 일본 팀이 2위에 오르며 재역전을 노렸으나 김창주·김지훈은 3위에 올라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인천시체육회 요트팀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은 1988~2000년 정성안·김대영 조의 3연패 이후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일본에 내렸던 남자 470급 금메달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남자 다이빙에서는 김영남(인천체고)·우하람(부산체고)이 싱크로나이즈 3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간판 복서인 신중훈(인천시청)은 선학복싱장에서 계속된 복싱 남자 -49kg급 8강전에서 인도의 라이스람을 3심 전원 승(3-0)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인천 선수단은 1일 핸드볼 여자 한일전 결승과 탁구 혼합복식 8강전 등에 출전해 금메달을 노린다.

〈특별취재반〉



심판도 ‘움찐’

30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고인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게임 태권도 여자 -53kg급 8강전에서 한국 윤정연이 인도 라타리 반다리를 상대로 공격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마지막 쏘 게임 의미 남달라”

김보미 女 정구 단식
첫 게임 내주고 날선 반격
실업 6년차에 ‘金’ 감격



“남자팀이 먼저 금메달을 따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첫 결승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왔다.”
김보미(안성시청)가 30일 인천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정구 여자 단식 결승에서 천후이(중국)를 4-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보미는 첫 게임을 내주고 두 번째 게임에서도 2-3으로 끌려갔지만 이후 연속 3점을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한숨 돌린 김보미는 이후 세 게임을 내리 따내 정상에 올랐다.
정구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이 나온 것은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실업 6년차인 김보미는 이번 대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아시안 게임이라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
김보미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아시안게임이라 의미가 크다”며 “부모님이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오늘의 AG

■ 한국 ▶ 리듬체조 개인 예선, 팀 결승(남동체육관, 오후 2시~) ▶ 농구 남자 한국-일본 준결승(삼산월드체육관, 오후 7시 45분) ▶ 농구 여자 한국-일본 준결승(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오후 5시 30분) ▶ 축구 여자 한국-베트남 동메달 결정전(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오후 5시) ▶

하키 여자 한국-중국 결승전(선학하키장, 오후 7시) ▶ 태권도 여자 -46kg, 57kg, 남자 -80kg, +87kg 결승(강화체육관, 오후 6시~) ■ 인천 ▶ 핸드볼 여자 한국-일본 결승전(선학핸드볼경기장, 오후 6시) ▶ 탁구 혼합복식 8강전(수원체육관, 오후 2시) 전지희

장석현 남동구청장 44억 단체장 최고 정창일 시의원 49억 광역의원 중 최고

인천지역 6·4당선 공직자 재산신고액 보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사항이 공개됐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시·도 광역단체장 등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억여 원, 이창연 교육감은 2천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신규 당선자 573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10억8천만 원으로, 직위별로는 광역단체장이 22억3천만 원, 시·도 교육감 3억5천500만 원, 기초단체장 10억7천200만 원, 광역의원 10억6천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동구청장은 재산총액 44억여 원을 신고해 인천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단체장에 올랐으며 전국 기초단체 신규 당선자 중에서는 4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이흥수 동구청장은 4억여 원, 강범석 서구청장 6억6천여만 원, 이상복 강화군수 11억여 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노경수(새누리·중구1) 의장은 11억8천여 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정창일(새누리·연수1) 의원이 49억여 원을 기록하면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시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본인 명의로 된 연수구의 토지와 아파트 3채, 부천시

평곡 등록액 10억8000만 원
유정복 인천시장 10억여 원
이창연 시교육감 2600만 원

원미구 상동 건물 등으로만 약 35억 원을, 자신과 배우자의 국제컨트리클럽 회원권으로 각각 3천300만 원을 신고했다.

시의원 재산총액 상위자로는 최석정(새누리·서구) 의원이 서구와 경상남도의 토지, 서구 소재 건물 등을 신고하면서 24억여 원, 공병건(새누리·연수2) 의원이 용진군 송봉도와 인천시 토지, 연수구와 부평구의 건물 소유로 21억여 원을 기록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영환 의원은 남구

송의동의 토지와 유지원 소유지분, 11억여 원의 예금을 포함해 재산총액 38억8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새누리당 출신인 동구1선 거구 황인성 의원 역시 동구와 강화군에 소유한 토지를 비롯해 빌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신고하면서 재산총액 36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된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심사 처분 기준에 따라 재산 등록사항의 누락·과다 신고 확인 심사를 비롯해 등록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하게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해병대 2사단, 지역청소년 300명 초청행사

국군의 날 맞아 문예경연 열고 전투장비 공개 등 親軍化 노력



해병대 2사단의 호국문예 경연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군인들의 도움으로 전투장비를 만져보고 있다.

해병대 제2사단은 30일 국군의 날 및 서울수복 기념일을 맞아 미래 안보의 주역이 될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34회 호국문예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호국문예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된 김포 및 강화지역 3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은 총 4개 부문(시, 수필, 수채화, 크레파스화)에서 그동안 갖고 묶은 솜씨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높은 뜻을 기렸다.

아울러 사단은 KAAV(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 일반인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부대 주요 전투장비를 직접 만져 보고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해병

대의 역사와 임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 40여 점을 전시해 학생들에게 해병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해병대 제2사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사랑에 대해 새로이 생각하고, 친군화(親軍化)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김혁호 기자 kimhho2@khihoilbo.co.kr

기후재정, 각국 지원 쏟아진다

유엔회의서 韓·프랑스 등 12억 달러·공여 약속 북돋
GCF 유치도시 인천도 녹색도시 전환 다각 모색

GCF 사무국 유치도시 인천시가 UN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의 자금지원 공약 발표로 '녹색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녹색기후기금(GCF)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프랑스가 10억 달러, 스위스 1억 달러 등 각국에서 기후재정 관련 자금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유엔본부에서 막을 내린 이번 회의에서는 126개국 정상

들과 800명 이상의 재계·금융계·시민사회 리더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2배 많은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10억 달러를 비롯해 스위스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각각 GCF에 공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도시로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 세계의 예코시티, 탄소제로 도시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장기 플랜을 수립 중이며, 기후 클러스터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산업 육성 방안도 고

민 중에 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녹색기후 관련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정책 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인천 녹색기후포럼'을 설립할 예정이다. 인천녹색기후포럼은 오는 11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식을 열고 GCF와 국제지속가능성대화(ABIS), 인하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도시 전환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산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저탄소·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개발하고, 시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모범적으로 줄여나가는 생활형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 기념식 재일학도의용군 6·25 참전 기념식이 열린 30일 인천시 남구 수봉공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탑 앞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조병석 객원기자 cbs@khihoilbo.co.kr

옹진군의회, 섬 민생현장 눈으로 주민 목소리 담아 의정 반영키로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지난 16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7개 면 도서 방문을 실시했다.

특히 소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소정도·소연평도를 포함한 지역의 유인도서를 구석구석 방문해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도서방문은 옹진군 현안 및 도서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투자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여론 수렴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방문 결과를 군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형도 의장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귀담아 들어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in@khihoilbo.co.kr



옹진군의회는 지역의 7개 도서 현안현장 점검을 모두 마쳤다.

강화, 내일부터 왕골공예경진대회 수상작 전시

강화군이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강화 화문석문화관에서 '2014 왕골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올해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작 등을 포함해 총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2일 개회식에서는 9월 열린 제25회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수상자 8명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 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 왕골로 만든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화=김혁호 기자 kimhho2@khihoilbo.co.kr

재능대 평생교육원, 2개 과목 정부 평가인증

인천재능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어린이북아트 2급과 항공예약대회 수상자 8명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 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 왕골로 만든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품질 기준을 갖춰야 하며, 강사진과 평가 방법 등 강의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인정을 취득한 강좌는 강의 수준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강좌를 이수한 수강생은 평생학습계좌에 등록해 자신의 평생교육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인천재능대 평생교육원은 이번에 평가인정을 받은 강좌 외에도 인천 지역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역사문화 관련 강좌와 바리스타, 미소심리상담사, 시낭송교육자 과정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평생학습계좌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평가인정을 시행하는데, 인천재능대는 지난 2월 상반기에도 6개 과목을 인정받았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송도관광단지 사업 만료 임박 도시공사 外資무산 등 판지만

육련동 4·5블록 토지주들, 市에 조속 추진 촉구

연수구 육련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송도관광단지와 관련, 도시공사의 횡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예정지역인 육련동 4·5블록 토지주들은 30일 인천도시공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가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지연시켜 사업이 실효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대토주협의회에서 인천시에 제출한 사업개발 방

식 민원 서류 관련 각종 이유를 들며 지연시켰다"며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가능하지 않은 보완사항을 요구해 이제까지 협의를 지연시켰고, 때문에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실효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트코에서 4블록 부지에 창고형 할인마켓을 짓겠다고 인천도시공사에 제안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를 하지 않아 700여 명의 외자유치를 무산시켰다는 주

장이다.

이들은 "이제는 인천시가 나설 차례"라며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업계획 재검토 및 관리감독을 실시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육련동 일부지역을 호텔·상가·오락·휴양 시설 등을 갖춘 도심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단지로 지정했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오는 9월 사업기간 만료로 사업 승인이 실효될 위기에 놓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전국 땅값 오르는데 인천은 평균 밑돌아 동구·계양구 0.10% 하락... 하위 5위권에

인천시 동구와 계양구의 땅값 하락세가 심각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 동구의 지가 상승세가 마이너스 0.11%, 계양구 마이너스 0.10%로 조사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김포, 고양 덕양구 더불어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두 지역의 하락 원

인으로 동구는 송림동의 주택 재개발사업 지연, 계양구는 서운동 농경지 수요 감소와 계산동 기존 상권 쇠퇴 등을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전국 지가가 전월 대비 0.14%p 상승해 2010년 이후 46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구역별로는 전국 시·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도권은 0.13%p, 지방 0.15%p로, 올해 누적기준으로는 각각 1.2%p, 1.3%p 상승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0.12%p로 경기(0.08%p)와 함께 전국 평균을 밑도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이번에는 0.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세종시가 0.48%p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0.29%p), 대전·대구(0.25%p), 부산·경북(0.18%p)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진료 종합검진 / 암검진 / 공단검진
내용 MRI, CT검진 / 위·대장내시경 검진
예약문의 032)890-8700

내집 마련 적기?... 주택 물량 쏟아진다

9·1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수익형 투자자 관심 ↑ 이달 도내 2만790가구 분양... 건설사 공급 호황기 판단

경기도내 10월 일반분양시장이 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낼 예정인 가운데 입지조건이 뛰어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분양시장은 전국 95개 사업장에서 총 8만5천611가구 중 7만4천426가구(오피스텔 포함·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가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이는 전월(9월 5만2천449가구) 대비 2만1천977가구가 증가한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44곳 2만6천629가구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

이는데, 이 중 경기도는 26곳 2만790가구가 수도권(서울 17곳 5천570가구·인천 1곳 269가구) 중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입지조건이 뛰어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수익형 투자자들도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GS건설이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공급하는 '미사강변센트럴하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91~132㎡ 총 1천222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접근이 쉽고, 인근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강일역과 미사역도 개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6-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영통'도 분양 대기에 있다. 전용면적 62~107㎡ 총 2천140가구로 분당선 망포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이 성남시 위례신도시 A2-3블록에 공급하는 '위례 하이'는 지하 2층·지상 19층 11개 동에 전용면적 101~134㎡ 총 517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주상 2블록에 공급하는 '광명역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2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3㎡ 640가구 아파트와 전용면적 24㎡ 143실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B2블록에 '구리갈매 B2블록 공공분양' 공급한다. 전용면적 74~84㎡ 총 1천181가구로 구성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10월 분양시장은 9·1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라며 "건설사들은 현 시점이 분양 최적기라 판단하고 서둘러 분양을 진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nhp@khihoilbo.co.kr



김학현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새로 출시된 '헤아림 시니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00세 보장 암보험, 고령자가입 쉬워진다

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헤아림 시니어' 출시 55~75세 대상 백혈병 등 고액암까지 집중 보장

NH농협손해보험은 급증하는 암 발생률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고령자를 위해 암 전용 보험인 '무배당 헤아림 시니어 암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헤아림 시니어 암보험'은 가족화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55세부터 75세까지 연령층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대장암·구강암 등 일반암은 물론 발병률이 높은 위암·간암·폐암 등의 특정암과 백혈병·뇌암·혈액암 등 높은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고액암을 집중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자도 사전 고지 후 서류 제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제도를 채택해 고령자의 가입이 수월하도록 했다. 10년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고 있어 보험료 증가에 대한 고객의 부담도 덜었다. 유방암·생식기암과 갑상선암 등 소액암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일반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차액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이 상품의 장점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무병자는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며, 농협소보 가입자도 1%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등 고객 혜택도 넓혔다. '헤아림 시니어 암보험'은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중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순수보장형 보험료 기준으로 65세 남자의 경우 월 7만 원, 여자는 월 2만8천 원으로 일 단시 일반 암 2천만 원, 특정암 3천만 원, 고액암 최고 4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유방암과 생식기암은 6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전국의 농·축협을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농협소보 전담 설계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안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사회적 약자기업 성장 도울 것”

김상규 조달청장 인천 방문 장애인·여성기업 지원 약속

김상규 조달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30일 인천지방조달청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가진 후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전기동 등 원자재 비축기지인 인천비축기지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푸름기구를 방문,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가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설약전기는 지난 1991년 설립, 배전반을 주력 제품으로 분전반·전력감시장비를 생산하는 전문업체이며, (주)푸름기구는 1970년 설립해 책장을 주력 제품으로 교육용 시스템가구를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기술이 우수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을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내실 있게 지원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인천비축기지에는 3천115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전기동 등 비철

금속과 인동 등 희소금속이 비축돼 있으며, 조달청 전체 원자재 비축물자 방출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지하경제 양성 ‘면세유’ 관리 강화

해수부 어업용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오늘자로 개정 시행 지자체서 해수부로 이관... 공급기준 일원화로 형평성 개선

그동안 지자체 소속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면세유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조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가 10월 1일부터 해수부 소속 기관인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이관됐다. 동·서해어업관리단은 조업지도, 불법 어업 예방·단속 등을 수

행하는 기관으로, 면세유 부정 공급 행위 근절 등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수부 소속 수산부서는 이 같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 관리 요령(해수부 훈령)을 10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어업용 면세유 사후 관리 기관 변경, 공급기준 일원화 및 조업의 공급 거부 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농협에서 정하는 내수면 어선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협 세부 공급 요령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공급기준 일원화를 통해 어업인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해경 등으로부터 면세유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 통보되면 조업이 부정 유통 행위자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중단(2년)하고 세액(가산금 포함) 추징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행정조치가 누락·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업에 분기별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 조업과 어업인과의 갈등 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됐던 면세유 공급 중지·거부 사유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어업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리기관(조합)의 변경을 가능토록 해 주소 및 조합원 가입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채무불이행 42%가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자’

김기식 의원 “서민 생활고 악순환... 상환 기회 줘야 할 것”

금융기관이 소액을 대출하는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 불이행자 109만7천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1천765명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액 대출자들의 채무 불이행액은 전체 금액 141조2천183억6천만 원의 0.6%인 8천892억3천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으로부터 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2천631만395명이 1천80조7천2천500만 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이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109만7천437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의 13%에 해당하는 141조2천183억6천만 원이 채무 불이행 대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출자에게 기회

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된 연체 정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 서민들이 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 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금 갱신에 연체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특허방수 |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한... |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 **단열복합시트**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인 높이고

-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차단 | 냉기 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 난방비 15~20%

난방비 절감 | 냉방비 절감

남양주시청

시공전 | 시공후

의왕시청

시공전 | 시공후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인천·부천 (032)471-6020	광명 (02)2625-7904	안성 (031)676-2885	구리 (031)567-5576	파주 (031)947-5576	광주·곤지암 (031)767-0470
남수원·화성 (031)233-8061	과천 (02)502-0494	남양주 (031)594-4416	포천 (031)531-5567	동두천 (031)861-5576	양주 (031)842-5576
북수원 (031)241-6920	고양·일산 (031)907-6029	평택 (031)657-0423	김포 (031)872-5576	김포 (031)907-6029	가평 (033)243-1728
의왕 (031)241-6921	성남 (031)733-4416	오산 (031)372-0893	이천 (031)636-7783	용인 (031)322-7751	춘천 241-8954
안양·안산 (031)422-1237	하남 734-4417		여주 (031)885-2050	양평·용문 (031)771-7782	

2만여 개 참신한 아이디어제품 한자리에

오늘 G-FAIR '팡파르'

“2014 G-FAIR KOREA(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가 10월 1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 나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G-FAIR KOREA에는 총 836개 사(전102개 부스)가 참가해 생활용품 및 가전, 전기전자, IT제품, 패션·뷰티·레저·선물용품 등 2만여 개의 우수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물 없이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샴푸, 바이크 운동을 하면서 계

도내 가전·IT·뷰티·레저 분야 우수종기 836개사 참여 40여개국 바이어 500명 등 기업부서서 1:1 수출 상담

임과 가상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게임용 헬스바이크, 조리 시 냄세와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적외선 그릴, 태블릿PC와 빔프로젝트를 결합한 태블릿 빔 등 혁신적인 제품들이 주목된다. 관람객들은 참가 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체험하고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서는 K-PO P 맨스틴과 비바이 공연, 마술, 퓨전국악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열린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2014 G-FAIR KOREA의 홍보대사인 샘 해밍턴의 팬 사인회가 열린다.

이 밖에 사진을 공짜로 인화할 수 있는 니콘 무빙스튜디오가 매일 운영되고, 네일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창업에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세미나도 열린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CEO 특강, 해외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유통망 구매정책 설명회, 중소기업 디자인 세미나, 가

매정책 설명회 등으로 구성됐다. G-FAIR KOREA 개막 첫날인 1일부터 이틀간 40여 개국 500여 명의 바이어와 국내 제조 및 유통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참가 기업의 부스를 돌며 일대일 상담을 벌인다. G-FAIR KOREA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fair.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31-259-6537~8)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백광섭 기자 ksp@khiolbo.co.kr



친환경 인천AG를 응원합니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탄소배출권 5000t 기부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는 2014인천아시아게임의 저탄소 친환경 대회를 위해 탄소배출권(CERs) 5천t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기부된 탄소배출권은 영흥화력 소수력발전 CDM사업 등을 통해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인천아시아게임을 저탄소 친환경 대회로 개최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소수력발전은 발전소에서 터빈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해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때 생기는 낙차를 이용해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며, 영흥화력은 1~4호기 발전설비에 소수력을 설치해 연간 2만t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고 올해 6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5호기 발전설비에도 소수력을 설치해 현재 운전 중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22일에도 진주 지역의 대표적 행사인 남강유등축제의 탄소중립 친환경 축제 지원을 위해 탄소배출권 3천t을 기부했으며, 인천아시아게임에도 탄소배출권 기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olbo.co.kr

3·4분기 비은행금융협의회 한은, 도내 실험 확대 논의

한국은행 경기본부 30일 도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3·4분기 비은행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은행권 LTV 및 DTI 완화 관련 상호금융기관 및 저축은행의 주담대 영향과 실험 영구화 확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30일 도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014년 3·4분기 비은행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CEO에 지식재산 활용 컨설팅

경기TP 매주 수요일마다 판교기업 맞춤형 전략 제시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경기 지식재산센터는 경기권초진흥원과 함께 판교기업인을 대상으로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공적인 스타트업 을 위한 '디자인지식재산클래스' 및 '지식재산상담소'를 운영한다. 경기TP는 이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한 지식재산(IP) 활용도가 높은 기업CEO 및 직원, 창업CEO와 예비 창업자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권리와 전략 등을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일대일 전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DesignIPclass in PTV는 판교공공지원센터 8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첫발을 내딛기에 앞서,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권은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글로벌 시대, 세계IP는 지금', 'UX(User Experience Design)&IP', '디자인 출원 처음부터 끝까지!' 등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재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참가 방법:경기TP 홈페이지(www.gtp.or.kr)나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org/ansan), 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41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olbo.co.kr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 기업주치의센터 간담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30일 반월시화 기업주치의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이티 등 8개 육성기업을 방문, 지원 실태 및 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기업주치의센터 지원사업은 기술, 경영, 금융, 국내외 마케팅 등 전문가 그룹이 컨설팅 및 자문 형태로 단지 내에 상주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펴고 있다. 이번엔 방문한 기업인 ㈜에이티(대표 김상태)는 자동차 엔진 및 미션테스터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센터의 지원으로 생산리드타임 단축, 설계 오류 감소 등의 효과를 봤으며 내년에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가 기대된다.

지난 2년간 센터의 지원을 받은 지이엔(주)(대표 박기현)은 자동차용 볼트·너트 및 기타 부품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부품소재 기업으로, 현장 개선과 품질 향상을 최근 독일의 말레그로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강남훈 이사장은 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과 보완 사항을 정취하는 자리에서 "한국산단공 출범 50주년을 계기로 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및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더욱 많은 지원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olbo.co.kr

농진청, 비타민E 풍부하고 가뭄에 강한 새흑미 개발

농촌진흥청은 30일 기존 흑미(흑남미)보다 향산화 물질인 비타민E가 많이 들어 있고 가뭄에도 잘 견디는 새로운 흑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비타민E 강화 흑미'는 담배에서 유래한 토코페롤 유전자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흑남비에 삽입해 만든 것이다. 실험 결과, 새로 개발한 흑미는 비타민E의 주성분인 알파 토코페롤이 1g당 354μg으로 기존 흑미(230μg/g)보다 53% 많았다. 베타 토코페롤(1.10μg/g)과 감마 토코페롤(1288μg/g)도 각각

41%와 31% 증가해 토코페롤 전체 함량(388μg/g)이 50% 이상 많이 들었다. 총 향산화 물질도 18% 이상 많이 들어 있어 높은 향산화 활성으로 기존 흑미보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실험에서 2주간 물을 주지 않다가 다시 물을 주었을 때 살아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기존 흑미는 말라 죽어 다시 살아나는 회복력이 약했지만 새 흑미는 대부분 살아나 4일 정도 지나 원래 상태로 회복됐다. 백노훈 기자 nhp@khiolbo.co.kr

인천항만공, 홍보안테나 세우다

공식 블로그 등 SNS 연계 입체 지도 통한 정보 공유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가 고객맞춤형 인천소셜지도도를 개발, 인천항 SNS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형 홍보 채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도와 공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콘텐츠가 결합된 '인천항 소셜지도'는 인천항 및 인천지역의 정보를 보다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도는 부두 등 인천항의 주요

항만시설 관련 정보를 보여 주는 인프라, 인천항이 제공하는 화물·여객 서비스를 소개하는 서비스 코너는 물론 곳곳에서 인천항을 움직이고 있는 전문가들을 소개하는 명인, 인천항 인근의 유명한 맛집과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싶어 할 명소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온라인 지도와는 달리 인천항만공사 SNS와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가 단순한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인터뷰나 통계자료 같은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세밀한 일러스트와 사진,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해 정보의

가시성도 크게 높였다. 공사 홍보팀 안길섭 부장은 "정부 3.0시대에 맞춰 취사가 보유한 데이터, 소셜 콘텐츠, 디지털 기술을 매시업(mash-up)한 정부기관 최초의 지도 서비스"라며 "서비스 초기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인천항을 국민들께 더 친숙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 소셜지도는 인천항만공사 공식 블로그 등락날라 인천항(http://incheonport.tistory.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olbo.co.kr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제13회 인천·중국축제의 날 문화관광축제

第13回仁川-中国节庆活动 The 13rd Incheon-China Festival

2014. 10. 04(토) 인천중구아트플랫폼 일원

축제 주제공연 17:00~18:00

축하공연 19:00~20:30

경인방송 **FM 104.1** 공개방송

출연: 박완규, 신촌블루스, 소향, 김창기(동물원)와 좋은친구들, AB 음악과 함께하는 차이나스토리텔링 레저쇼

이벤트 13:00~17:00

짜장면·중국만두 팔리먹기 · 한·중 OX퀴즈 · 7080 가수 공연

참여·체험행사 13:00~17:00

I Love China (중국문화체험) · 중국 전통의상 체험 · 포토존 체험 · 중국 전통무술 체험 · 한·중 전통차 체험 · 아트나눔장터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기호일보·(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문의 (032) 761-0007

후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도시공사** **신한은행** **포스코건설**

투데이

시흥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연수

시흥교육지원청 Wee센터는 30일 지역 초·중·고 전문상담(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 Wee센터 교사 연수 자우(慈雨)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상담에서의 DSM-5 활용 등을 진행했다.

자우(慈雨)프로그램은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일반 교사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2학년도에 개발된 시흥 Wee센터 위하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2014학년도 10회 연수 중 이날 7회째 연수가 진행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상담의 DSM-5 활용 연수는 상담 장면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발견하고 문제 유형별로 상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한편, 연수를 통해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사 학생들의 전문적인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시흥=이옥희 기자 oclee@khihoilbo.co.kr

용인시, 공공비축미 634t 매입

용인시는 2014년산 공공비축미 634.56t(1만5천864포대/40kg)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시행된다.

시는 우선 농가에서 수확한 상태 그대로의 산물벼 606.96t(1만5천174포대)을 10월 1~27일 매입한다. 이동·남사지역 매입량은 이동면 화산리에 있는 이동DSC(전조저장시설)에서, 이동·남사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매입량은 원삼면 맹리에 위치한 용인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매입한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논의

광주시는 '제2차 광주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를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5기 대표협의체 위원 변경에 따른 위촉장 수여, 제3기 계획 주요 내용 보고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설명은 TF 위원인 이승민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고, TF 통합운영단인 신우경 대표협의체 위원이 부가 설명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안양 3D프린팅 강사들 협회 구성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진흥원의 '3D프린팅 전문강사 교육'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한국 3D프린팅 강사협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3D프린팅 강사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6~28일 열린 '안양시민축제' 기업홍보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3D프린팅 시연과 작품전시회,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 3D프린팅 강사협회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함께 학교, 단체, 기업에 3D프린팅 및 관련 교육 내용을 수준별로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양육된 전문강사 풀로 정부의 '3D프린터 선도국가 도약' 비전에 걸맞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itae151@khihoilbo.co.kr

수원 영동시장서 한복맵시 대회

전통 한복과 침구류를 주로 취급해 '복있는 시장'이란 별명을 가진 수원 최대의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에서 한복맵시선발 대회가 열린다.

수원 영동시장은 오는 10월 9일 오후 7시 팔달문 지동교 광장에서 제11회 한복맵시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양화되고 있는 전통 한복을 대중화하고 우리 옷 한복의 미를 살리고자 마련한 이번 대회는 시민은 물론 수원화성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우리나라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입상자들은 영동시장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활동한다.

수원 영동시장에는 300여 개 점포가 있고 이 중 상당수가 한복과 침구류, 의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수원=김진기 기자 sjs@khihoilbo.co.kr

양평읍 주민자치 프로 수강생 넘치는데 강의실 태부족

신축 청사 주차난까지 겹쳐... 편의시설 확충 시급
읍장 "민원인 불편 해소 위해 우수지 주차장 조성"

지난해 11월 신축한 양평군 양평읍 청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에 비해 강의실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사무실 1개와 강의실 3개로 올해 하반기 자치 프로그램 수강 신청 결과 23개 강좌에 350여 명이 신청, 강의실이 태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회의실을 빌려 임시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강생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8월 14일 양평읍 인구는 3만 명을 돌파했으며, 향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증가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양평읍 청사에 장애인 2대, 임산부 2대를 포함해 66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으나 직원들의 차량을 고려할 경우 고차 40여 대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인근 도서관이나 갈산산책로 이용객 증가로 양평읍 청사 내 주차난 우려가 예상된다.

양평읍 청사부지 내에는 양평읍 사무소, 양평읍 주민자치센터, 이천세무소 양평출장소, 양근리 마을회관, 양평읍 예비군중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중앙도서관과 갈산공원, 남한강 산책로가 있다.

이창승 읍장은 "민원인 방문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은 갈산촌환담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서 요구하는 양평읍 청사 3층을 증축해 주민자치 강의실을 확충할 경우 극심한 주차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평읍 양근리 259-1번지 일원의 양평제1배수펌프장의 우수지를 복개해 주차난 해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미 인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설계가 90% 이상 완료된 상태로, 주차계획으로는 지상 2층으로 97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양평=김주성 기자 kjs@khihoilbo.co.kr



양평군 양평읍 신축 청사 주차장은 총 66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으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고려할 경우 턱 없이 부족하다.

화성-오산 삶의 질 향상 방안
주민 통통 튀는 아이디어 공모

오늘부터 교육 등 5개 분야

화성시가 '화성-오산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2014 시민·공무원 제안공모'를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화성과 오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 문화 융성·생태 복원, 복지의료 등 총 5개 분야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행복생활권 확대를 위한 '화성·오산 간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간 중 접수된 제안에 대해 11~12월 중 평가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 시·군의 경계를 넘어 주거, 통근·통학, 여가 활동 등 지리적·문화적으로 동질감이 큰 인근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으로 연계교통망 확충,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양 도시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화성=조홍복 기자 hjb@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시흥 옥구공원 문화쉼터 변신

기존 부지 활용 공연장 마련
시립예술단 상설 프로 운영

시흥시는 옥구공원 내 기존 씨름장 부지를 활용, 야외공연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정왕권역에 특별교부세 7억 원,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쉼터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야외공연장은 옥구 놀이마당으로 4월 개관식과 시립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민

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시립예술단의 상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연습실을 마련하는 등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여건을 향상시켜 예술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윤식 시장은 "앞으로 옥구 놀이마당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공간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옥희 기자 oclee@khihoilbo.co.kr

수원지역 오늘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확대

10월 1일부터 수원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 운영된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주택이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문화질서 정착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운영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미계약자가 부정주차 시 부정주차료 부과 화서시장 주변 임시주차장(야간) 37면을 이날부터 2016년 9월 30

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권선구 세류3동 거주자공영주차장(전일/24시간) 42면을 13일부터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며, 팔달구 인계동 일원(야간) 682면은 11월 1일부터 추가 운영해 총 825개소 1만8천216면을 운영하게 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미계약자가 부정주차 시 부정주차료 부과 및 견인조치하게 된다.

수원=김진기 기자 sjs@khihoilbo.co.kr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위원회 구성·재추진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평택시는 사업 재추진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를 구성,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위원회는 경기도와 도·시의 원, 지역주민, 법률·금융·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서강호 부시장이 맡는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달과 사업성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재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공재광 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사업의 재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또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 조달 방안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될 것이다"라며 "평택시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기 기자 jtk@kh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hihoilbo.co.kr



가평군은 자라섬 불꽃축제를 국내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밸류컬처엔미디어·씨엔케이컨설팅과 MOU를 체결했다.

자라섬 오색 불꽃 '매년 기대해도 좋다'

군·밸류컬처엔미디어 등 축제발전 업무협약
문화 콘텐츠 차별화·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자라섬 내에서 오색불꽃 퍼포먼스와 캠핑, 바비큐, 각종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라섬 불꽃축제를 올해뿐 아니라 매년 5월 즐길 수 있게 됐다.

가평군은 올해 처음 시도된 자라섬 불꽃축제의 주최사인 ㈜밸류컬처엔미디어, 주관사인 ㈜씨엔케이컨설팅과 30일 자라섬 불꽃축제의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성기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임직원과 밸류컬처엔미디어 이철 대표, 씨엔케이컨설팅 신미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 기관은 협력체계 유지, 축제 실행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자라섬 불꽃축제 중·장

기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한 씨엔케이컨설팅 신미선 대표는 "초기에는 군민의 참여 폭을 확대해 행사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중기에는 문화예술적 축제의 가치 상승을 도모해 한국의 대표 불꽃축제이자 세계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갈 것"이라며 "매해 5월 축제를 개최해 자라섬의 5월이 불꽃축제 시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퍼포먼스와 불꽃쇼가 결합된 차별화된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나 지역의 관광자원이

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군수는 "지난 8월의 불꽃축제는 첫 회임에도 많은 관람객이 모였고 만족도도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축제를 확인했다"며 "안정적인 재정과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회사 운영으로 대외적으로도 신뢰도가 높은 두 회사와 함께 이 축제를 이어가게 돼 더욱 힘이 된다.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가 있는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표본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평=엄정섭 기자 osuim@khihoilbo.co.kr

기자의 눈

최두환 / 사회2부

두 경찰관의 일탈

저녁 같은 서에 근무하는 동기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다. 식사를 마친 후 지난 24일 새벽 2시 30분께 A경사(여)와 B순경은 시내의 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한 애정 분위기를 벌이다 발각돼 112신고로 당했다. 그것도 여고생이 신고의 당사자였다. 이 여고생은 "공원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



찰은 당시 이들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경찰 동기로서 연인 사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타지방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일로 시민들은,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성범죄를 예방한

다고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하면서 정작 경찰 자신들은 모범에 반하는 일을 저지르는데 어찌 학생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개탄하고 있다.

경찰은 직장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매일 직무와 덕목에 대해 교양 교육을 받는다. 또 경찰 내부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자체 사고 예방교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나 사고는 늘 터지고 있다.

"이번 일은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검사장의 일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고 경찰서의 서장이 직원들에게 일갈할 때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단국대·기업·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대학생 7명 교육 재능기부
PPG코리아 장학금 지원

단국대학교가 기업, 교육청과 손을 잡고 지역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교육 기부 사업을 펼친다.

단국대는 30일 오후 인문관 대회의실에서 첨단 도로 및 코팅제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PPG코리아, 천안시교육청과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장원철 단국대 교무지원처장을 비롯한 단국대 관계자, 최경섭 천안시 교육장과 도종근 PPG코리아 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교육기부 협약에 따라 PPG코리아는 단국대 화학과 재학생 7명에 총 2천573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천안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천안

소제 저소득층 중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펼치게 된다.

7명의 단국대 재학생들은 멘토가 돼 각각 중학생 멘티 3명에게 4개월간 총 100시간의 방과 후 학습 지도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번 멘토링 장학사업은 기업이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중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하는 것으로 각각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 높게 만드는 교

육기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안시교육청 또한 교육기부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PPG코리아는 1883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산업소재 업체인 PPG Industries Inc의 한국법인으로 자동차 및 공업용 도료, 코팅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1년부터 본사가 위치한 부산지역에서 대학생들과 지역 중학생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장학금 사업을 펼쳐왔으며,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낙후지역 벽화 그리기 등 상생의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경기 지역 곳곳 시민의 날 기념 행사 활짝

안산 발전 헌신한 49명 표창

시, 내일 공로자 시상

안산시는 2일 안산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가하는 제29회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기념공연과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 대한 유공자 표창으로 진행된다.

극단 이유와 안산시립국악단의 퍼포먼스, 지구촌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3부에 걸쳐 진행돼 시민들에게 뜻깊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상은 시민행복상, 안산 시문화상, 최용신봉사상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4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특히 시민행복상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활발한 지역 봉사 활동으로 개인 부문에서 명성교회 김홍선 목사와 대한적십자사 안산협의회 박팔문 회장이, 단체 부문으로 안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수상하게 된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시흥시민 클래식으로 한마음

4일 예술 축제서 화합

시흥시는 제26회 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 4일 시청 늪내홀(옛 대회의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예술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의 날을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시민이 하나가 돼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위해 준비한 예술공연은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중심으로 국내 유명 성악가(바리톤 최중우, 테너 나승서)와 협연할 예정이다.

(소프라노 함희경)도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여 시민의 날을 더욱 의미있게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재 색소포니스트로 잘 알려진 대니 정(Danny Jung)이 출연, 대중의 귀에 익은 멜로디와 팝적인 연주 기법을 들려줘 가을밤 편안한 연주의 세계로 초대한다.

김윤식 시장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예술공연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시흥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공연 기획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시흥=이유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동화 작가와 책 읽기에 '풍덩'

초교 35곳 독서스쿨 참가 안양과천교육청 프로 성료

안양과천교육청원은 30일 롯데백화점 평촌점 문화홀에서 35개 초등학교 어린이 및 학부모, 사서교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함께하는 독서스쿨' 공연을 성황리에 열었다.

유지원씨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민백초 '책 읽어주는 어머니회'의 '빛그림 공연'과 미술사 K의 '미술공연', 아동문학가 황선미 작가의 강연이 펼쳐졌다. 이날식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어린이들이 동화작가와 만남을 통해 책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주최, 안양과천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8개 유관기관·단체와 30일 대회의실에서 오산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산 중학생 꿈 키우는 창의체험 지원

화성오산교육청-18개 기관, 자유학기 활성화 업무협약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30일 대회의실에서 오산교육 발전을 위한 18개 유관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강운성 교육장을 비롯해 과상욱 오산시장, 문영근 시의회 의장, 윤동준 화성동부

경찰서장, 홍진영 오산소방서장, 최현우 NH농협 지부장, 이기택 오산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16년 부터 전면 시행될 중학교 자유학기

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유관기관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간접진로 체험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미래의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교

육기부 강사 지원, 일자리 멘토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원,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운성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화성오산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hihoilbo.co.kr

군포 취약층 홀로서기 첫발 내딛다

자활 참가자 고용 카페 창업 시 "일자리 창출 아버지 기대"

군포시의 취약계층 자활·자립 지원사업 참여자 2명이 최근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홀로서기에 도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저렴하고 질 좋은 음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청 민원실 내에 카페 '아미스'를 개점·운영 중으로, 이곳에서 전문 직업 능력을 키운 시민 2명이 자활기업 카페 '크레마S'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군포시 광동로 80 신원타워 2층에 자리한 카페 크레마의 'Crema'는 황금빛 갈색의 거품이나 크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카페 아미스의 친구들이 황금빛 결실을 거두기 바란다든 의미를 가진다고 시는 설

명했다.

때문에 시는 자활기업 '크레마S'가 성공적으로 발전해 지역의 또 다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와 수익금 일부의 사회환원 활동 등이 이뤄져 자활사업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의 취약계층 자활·자립사업 위탁·대행기관인 군포지역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전문교육과 아미스 카페 운영 지원,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뜻깊은 결과물을 창출해 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좋은 성과를 위해 앞으로도 취약계층 복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hihoilbo.co.kr



인천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안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사업장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은 '14년부터는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생산품 구매를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기업(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Table with 4 columns: 사업체명, 소재지, 주요생산품, 연락처. Lists various businesses and their products like '전차점속카드제조', '학생복 자켓, 유니폼', etc.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기업지원부.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기업지원부. ☎032-242-1031

Advertisement for '새 텃밭' (New Field) featuring fresh produce. Text includes '생/고기/전/문/점', '고객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and contact info for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01-1. Includes a list of products like '항정살', '가브리살', '생삼겹살', '갈매기살', etc.

등네네 성남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운영. 성남시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사전 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전 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다.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승인 민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20일 내 해결할 수 있고 구비 서류 비용, 부지 매입 착오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은 ▶건축물 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 허가 ▶용도변경 허가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운영 또는 변경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장소 적합 확인 허가 등 22종이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내일 안양시민회당 국민의식 특강. 안양시는 이보구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장을 시작으로 안양시민회당 국민의식 분야 특강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장은 10월 2일 오전 10시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 '행복을 여는 카바람직한 삶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한다. 오는 16일에는 강릉도 경민대 북한학 교수가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미래'라는 주제로 최근 북한 정세 변화에 대해 들려준다. 안양시민회당 특강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 참석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itee6151@khihoilbo.co.kr

화성 공공비축 미국 4436t 매입. 화성시가 오는 10월 6일부터 2014년산 공공비축 미국 4천436t(11만 포대/40kg)을 매입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공비축 미국 매입은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양곡을 비축하는 제도로 산물비는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건조비는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품종은 삼광벼·추청벼 2개 품종으로 산물비는 농가가 벼를 수확한 상태 그대로 대한농산, 독정, 화성RPC에서 읍·면·동별로 매입하고, 건조비는 농가가 건조한 후 정선한 벼를 경기참고, 대한농산RPC 2곳에서 매입한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건조벼 기준 특등급 5만3천710원, 1등급 5만2천 원, 2등급 4만9천690원, 3등급 4만4천230원이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칠 기자 jch@khihoilbo.co.kr

장순희의 **국방토크톡**



미국의 IS공습이 주는 대북 경고메시지

중동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가 서방과의 성전(聖戰:지하드)을 선언하고 무고한 외국 민간인 인질을 참수하는 등 끔찍한 공개 살육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41) 참수를 시작으로 2명을 참수해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IS는 2004년 알카에다와 연립해 창립한 단체로 국가의 3요소인 영토·국민·주권(정부)을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공식 형태의 국가로 볼 수도 있으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종교적 신념으로 집단을 이룬 이슬람 수니파의 독립무장단체(8천~2만여 명)라는 군사적 성격이 짙다.

특히 IS는 과거 AD 622~750년에 중동 전역과 아프리카 북부 및 이베리아반도에 이르는 대영토를 지배했

던 이슬람제국의 칼리파(Caliphate, 무함마드의 정통 후계자)왕조의 부활을 꿈꾸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광신테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은 이라크·시리아·레바논과 이란도 포함한 중동 북부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마치 21세기판 반기독교 종교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분쟁지역에 직접적인 무력 사용을 자제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월 10일 공습범위지역 확대, 현지 병력 지원과 미군 증파, 실질적 테러 역지력 강화, 인도적 구호 강화 등 IS 격퇴 4대 전략을 밝히고 '국제 연합전선' 구축을 표명했다. 미국은 9월까지 162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으며, 군사작전 강화 이후 미국인의 보호와 인도주의 임무란 두 가지 공습 원칙을 지키면서 14일 이라크 북부 산자르 지역을, 15일에는 바그다드 남서부 IS지휘소를 공습했다. 그리고 22일

에는 시리아 북부 지휘소 등 주요 목표 50여 개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습에는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의 수니파 5개국도 가담해 새로운 형태의 중동 분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0개 아랍국가를 포함해 호주 등 37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한국도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외국인 테러전투원(FTF)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동참 의사를 밝혔으므로 IS 응징격멸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제2차 걸프전쟁(2003~2011)을 끝내면서 미국은 분쟁지역에 자국군의 개입을 자제하라는 국민 여론에 따라 실병력의 투입을 회피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IS에 대한 다국적 연합전선 결성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힘의 우위정책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전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특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IS 공습에서 보여 준 미국의 응징의지가 국가안보에 긍정적

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뉴스영상에서 보여 주는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 폭격기, 함대지 토 마호크미사일 등으로 시리아 북부 지휘소 등 주요 목표 50여 개에 대한 정밀타격 장면은 북한 군부의 간담(肝膽)을 서늘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지가 실행되자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은 방관자적 목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서 냉정한 국제 현실을 인지시키는 학습효과가 됐을 것이다.

유사시 북한의 무모한 대남 도발은 한미연합군의 전력으로 어떤 응징을 받게 될 것인가를 대변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비록 북한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 준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의지에 따라서는 평양조차도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계기도 됐을 것이다.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서해안

바로 보자

유명한 화승(齋僧)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그림 한 폭 그려 줄 것을 부탁하면 그는 항상 먼저 선금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것도 일반인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의 고액.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욕심쟁이 화승이라고 흉을 보곤 했다. 그에게 하루는 기생이 찾아와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자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림값부터 흥정했다. "돈은 얼마나 낼 수 있소?" 그러자 기생은 "돈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주겠으니 대신 우리 집에 와서 내 앞에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고 조건을 제시했다. 적당한 날을 잡아 기생은 화승을 불렀다. 마침 그날은 그녀가 자신의 후원자를 위해 연회를 베푸는 날이었다. 화승은 기생이 요구하는 그림을 정성껏 그리고는 약속대로 고액의 돈을 요구했다. 돈을 받고 막 그녀의 집을 나가려는 순간, 기생이 후원자들에게 소리쳤다. "이 화승의 그림은 좋아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돈으로 더럽혀져 있다. 돈이 점점 더 그의 마음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린 이 그림을 어디에도 전시할 수 없으니 자신의 속지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알맞다"고 비꼬았다. 화승은 그녀의 속지마에 정성껏 그림을 그려 주고 많은 돈을 더 받아 갔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는 더욱 돈만 아는 욕심쟁이 화승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가 왜 돈을 모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스님이었던 그는 자신이 사는 지방에 주기적으로 찾아 오는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서 받은 돈으로 곡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남을 볼 때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절대 화해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눈, 살릴 눈 하면서 따진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몇 달째, 이전은 아직도 선거 이야기가 분분히 냉랭하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가를 냉철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천=신용백 기자>

특별기고



박희관

'맞춤특기병'에 도전해보자

이제는 군대도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가는 시대다. 예전의 군대는 소위 영장이라고 했던 임명통지서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뒤 필러가 하나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군에 지원하는 청년들의 눈빛을 살펴보면 예전과는 정말 확연히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다. 스스로 알아보고 찾아서 지원하며, 단지 군대는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생의 공백 기간이 아닌,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년여의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대학생들은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들은 기술을 한층 더 연마할 수 있는 기술행정병으로, 어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통역병이나 어학병 등으로 저마디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군복무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군에 지원하는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행정병의 경우 10대 1 이상의 경쟁률까지 보이는 특기가 있어 불합격하는 청년의 경우 원하는 임명 시기를 맞춰 주지 못하는 것이 지방청장으로서도 참 마음이 아프다.

기병은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군 전력 증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자체가 큰 고민거리이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은 기술이나 스펙 등이 없어 체력 위주의 보(보)병 등으로 임명하게 됨에 따라 대학 이상 학력 청년에 비해 군 복무로 인한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역 후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는 더욱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젊음과 도전은 우리 청년들의 특권이자 늘 지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꼭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라면 군 입대와 미래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맞춤특기병'에 도전해보자! 청춘은 여러모로 아프다. 아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는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청춘이라면, 입대 걱정에 취업 걱정에 힘든 고졸 이하 학력 청년들은 새로 생긴 '맞춤특기병'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임명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몇 개월의 기술훈련이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亡羊補牢(망양보뢰: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라고 했다. 바로 지금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는 뜻이기도 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던가? 지금부터 내 적성에 맞는 기술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해 미래의 직업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 '맞춤특기병'에 많은 고졸 이하 학력 청년들의 도전 을 기대해 본다. <이천경기지방병무청장>

기호일보 www.kihoilbo.co.kr
등록번호 가-61-알간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훈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9 연합뉴스 빌딩 4층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축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 편집국 팩스 032-761-0011 / 전산실 032-761-0009
판매국 032-761-0008 / 정경·사회부 032-761-0004 / 재판부 032-761-0013
보급문의 032-761-0002 / 문화·체육부 032-761-0005 / 출판부 032-761-0008
편집부 032-761-0006 / 포토기호 032-761-0001
검 단 032-563-0022 / 중 구 032-772-4909 / 부 천 010-5356-8211 / 신 갈 031-285-2283
계 양 032-547-5947 / 강 화 010-3330-5204 / 서 울 02-313-5962 / 처 인 031-333-1112
남 구 032-882-2547 / 가 평 031-582-0478 / 성 남 031-757-8948 / 의정부 031-845-4200
남 동 032-421-1966 / 고 양 031-962-5360 / 수 원 011-242-6004 / 이 천 031-634-3312
동 구 032-764-2775 / 안양·과천 010-6354-3259 / 시 흥 010-3218-8724 / 파 주 031-941-4513
부 평 032-526-9400 / 광 명 031-897-8283 / 안 산 010-5313-5329 / 평 택 031-653-3132
성 석 032-576-4191 / 광 주 010-5204-3470 / 안 성 031-675-2615 / 포 천 031-535-5806
송 도 032-831-0797 / 구 리 010-8212-0343 / 양 주 031-845-4200 / 하 남 031-793-4142
연 수 032-811-6911 / 군포·의왕 031-394-0446 / 영 평 010-8916-2106 / 발 안 031-352-5265
연 안 032-887-7355 / 김 포 031-997-3030 / 여 주 031-885-3627 / 봉 당 031-297-8086
연 회 032-561-4189 / 남양주 031-511-4434 / 연 천 031-834-1307 / 화 성 010-9274-3466
영 중 032-743-2990 / 동두천 031-865-2557 / 오 산 010-9274-3466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상식 한토막 힉스입자(Higgs boson)
현대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입자와 물질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 매개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소립자이다. 1960년대 이후 입자 물리학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입자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이를 설명하는 '표준모형'이 성립됐다. 입자 사이에는 네 가지 기본 힘(중력, 광자, W·Z입자, 글루온)이 존재한다. 이들 입자를 게이지 입자라 하는데, 대칭성을 만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하며 실험적으로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러나 게이지 이론에서 말하는 입자들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현대 입자 물리학에서는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가설을 도입해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론물리학자 힉스(P. W. Higgs)의 이름을 따 명명됐으며, 그 존재가 질량의 근원과 우주 생성의 비밀을 밝혀 낼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신의 입자(god particle)'라고 불린다. <곽>

아직도 칫솔을 그냥 보관하십니까?
99.9%완벽 칫솔살균기

매일같이 사용하는 우리가족 칫솔이 세균덩어리 라면!!!
칫솔사용후 칫솔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5분안에 세균과 병원균이 번식합니다. 뉴클린 칫솔살균기는 99.9%의 완벽한 살균, 건조, 소독을 위해 85℃ 고온이 방출되는 원적외선히터 살균방식으로 24시간 완벽히 살균합니다.

치솔세균 차단
대장균, 녹농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충치균, 무스탄균
그외 600여종의 세균방출을 완전차단하여 항상 깨끗한 칫솔을 유지합니다.

병원균 차단
물기나 욕실습기인해 더 많은 세균과 병원균번식이 칫솔에 생기는것을 막아줍니다.

원적외선 히터 방식 살균
99.9%의 완벽한 살균, 건조, 소독을위해 85℃의 고온이 방출되는 원적외선 히터방식 살균으로 6W의 소비전력으로 24시간 작동시 전기료절약

관공서, 기업체,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선물로 최고의 인기제품!!!

구입문의 : 032-864-9988 www.houselife.co.kr 여성기업,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 (주)천우굿프렌즈

‘45억 아시아의 꿈’을 담은 축제의 개최식이 잊혀졌던 것 같은데 어느새 막바지에 가까웠다. 이미 경기가 끝난 종목도 여럿 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선수들과 응원단도 많다.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타오른 성화는 4년 후인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경기는 오늘을 포함해 아직 나흘이 남았다. 해서 이 나흘 동안은, 이제 막바지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여러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 도시를 영원히 추억하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다. 또 한편 우리 자신도 이 잔치가 과연 긍지와 자랑으로 오래 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흘의 시간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번 제17회 아시안게임은 BC 18년 비류(佛流)가 문학산정에 미추홀 왕국을 도읍하면서 인천이 한국사에 처음 등장한 이래 개최된 가장 큰 국제 스포츠 행사다. 모르기는 해도 아마 20년, 30년 안에 이 같은 대규모 축제가 다시 우리 도시에서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세월이 지난 뒤에야 가능할지 모른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개막 이후 우리는 몇 가

기호포럼

김윤식



축제의 막바지에서

지 불켜져 나온 잠 때문에 적잖이 체면을 손상했다. 생각해 보면 개최도시 주인으로서 여간 부끄럽고 유감스럽지가 않다. 그러나 심기일전! 손님 앞에 내보인 일부 결례와 실수를 만회하고 끝나는 축제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은 나흘 동안은 이래서 정말 중요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그 유지부터 우리에게 바깥과 같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견해가 많았다. 우리 내부에서 개최 포기 의사와 반박 등의 곡절이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도 메인 스타디움 신축 문제로 적잖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막대한 개최 비용도 우리 시를 크게 곤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물론 이 문제는 축제가 끝난 후에도 두고두고 우리를

시련 속에 가둘 것이기는 하지만, 그 때 문에도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이 제각각 달라지고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둘러싼 이런 복잡한 사정은 시민 모두의 열정과 능력을 100% 결집해 내는 데 분명 큰 장애가 됐다. 따지고 보면 온 도시를, 온 시민을, 이 아시아인의 축제 마당의 뜨거운 열기로 사로잡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더 무슨 말이 필요인가. 우리는 난관을 헤치고 결국 이 국제 행사를 개막했고 드디어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과거의 서로 다른 견해를 접고, 남은 나흘은 우리 모두 정말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감해야만 한다. 진정한 ‘아시아의 꿈’이 인천서 빛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빈 경기장을 매워 외국 선수, 손님들에게 마지막 우리의 열정과 합심을 보여야 한다.

인천시민의 타오르는 열정과 일사불란한 합심은 1만3천여 참가 선수단과 수많은 각종 응원단에게 인천을 아름다운 개최도시로 기억하고 추억하게 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자신의 가슴, 가슴속에도 터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그리고 보람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오롯이 남게 되는 길이다.

단언컨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마무리, 이 한 가지로써도 증명된다. 우리는 가슴을 펴고 대대적인 성공을 꿈꾸자. 2천 년 고도(古都) 인천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역사의 풍상을 겪어낸 저력의 도시다. 얼마든지 그 성공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가질 능력과 자격이 있다.

16일간의 축제가 막을 내리고 성화가 꺼지면 인천장애인아시아대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천 시민 역량을 심본 발휘하자.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자. 아, 그렇다. 인천은 다함없는 가능성과 꿈을 가진 위대한 도시다. <객원논설위원/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시 설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철저한 준비를

인천아시안게임이 대회 초반부터 준비 소홀과 운영 미숙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관련, 이어 열리는 장애인아시안게임(APG) 운영에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까 우려한다는 걱정스러운 보도다. 지금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2주 후인 18일부터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를 슬로건으로 6일간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아시아 장애인 스포츠제전이 펼쳐진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장애인대회의 흥행을 기대했지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 가뜩이나 관심이 덜한 APG의 흥행 실패가 예상된다. 게다가 APG 자원봉사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참여 의사를 철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치러야 하겠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참가 선수도 적고 대회 기간도 짧다.

인천조직위원회는 장애인이 출대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해 망신을 샀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을 보면 한 장애인 시민이 아시

안게임을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귀빈용 주차장으로 둔갑돼 있어 주차를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엄연히 장애인 주차장인데도 ‘VIP’ 용이라 주차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하고 있는 이번 인천AG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대접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문명국가다.

인천AG는 아시아 45개국에서 참가한 아시아 대륙전이다. 각국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인천의 이미지를 아시아에 알리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가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대회로 아로새겨진다면 이보다 더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 18일부터 치러지는 APG에서는 단 한 건의 실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순간의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미숙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 취약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다가오는 장애인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당부한다.

대구의 노사정 협약을 주목하며

지난 26일 대구지역 노사정이 기업 유치를 위해 분규를 일으키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경영계는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정부와 대구시는 행정·정책적 지원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섬유업종의 쇠락과 함께 20년째 지역내 총생산(GRDP) 최하위를 기록해 온 대구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나선다. 팔을 걷어붙이며 기업 유치에 나선 것이다. 이 바깥쪽의 협상 테이블에 민노총의 참여 소식을 듣지 못해 아쉬웠지만 성공적인 대구 경제의 순항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지난 7월 마르틴 폭스바겐 회장은 저렴한 멕시코 대신 미국 테네시 공장에 SUV공장을 짓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공장은 미국 자동차노조(UAW)의 설립을 오히려 근로자들이 반대해 무산시킨 곳으로 유명하다. 테네시 공장 근로자들은 GM과 크라이슬러가 무너지고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할 때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목격했기에, 앞장서서 강성노조의 진입을 막아냈다고 한다.

한편 폭스바겐은 이 공장에 2016년까지 9억 달러 투자, 주정부는 직원훈련소 건설을 위해 1억8천만 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 한다. 근로자의 현명 선택이 지역을

살린 것이다. 세계화로 지역별 비교우위가 확인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선택 폭이 넓어졌음을 유의해야 한다. 호전적 강성노조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승리는 한국의 근로자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승자의 저주조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임금 협상에서 노조가 이길 때마다 기업은 중국·인도·베트남 등으로 아웃소싱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가 시중에 풀리기를 원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 공장 증설이나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 쓰일 확률이 더 높다.

낙관적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부동산 활성화,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와 같은 순수인 정책들로 살아날 수 있다면 아마 벌써 좋아졌을 것이다. 매 정권마다 사용했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제 활력도 회복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상호 간 양보, 회생을 바탕으로 한 노사정 타협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대구와 함께 지역내총생산 부분에서 만년 하위권을 유지해 온 인천이 이번 협상을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다.

다산포럼

황상의



정조의 수명이 짧았다?

시대에는 어땠을까? 그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남성의 대략 15%만이 56세까지 살았다. 지금 한국 남성의 15%가 90세를 넘어서까지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카이사르가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예견치 않은 죽음을 맞은 것은 전혀 아니다. 지금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달랐던 로마 시대를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비역사적’이다.

얼마 전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에 ‘정약종·약용 형제의 비극과 성공’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 중에 “1800년 음력 6월 학자 군주 정조는 그렇게도 다산 일파를 두호했건만 끝내 명이 짧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라는 언급이 있다. 글의 필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정조의 ‘요절’을 안타깝게 여기며, 나아가 정조가 더 오래 살아 더 오랫동안 통치했으면 이후 우리나라(조선)의 역사가 한결 나았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정조는 1752년 10월 28일(음력 9월 22일)에 태어나 1800년 8월 18일(음력 6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 만 48세도 채우지 못했다. 지금 한국인 남성의 평균수명 78세에 비하면 30세 가량 명이 짧은 것이다.

한편, 정조가 국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4년이다. 조선시대(1392~1910년) 국왕 27명의 평균 재위기간 19.2년보다 5년 가량 오랜 나라를 통치했다. 박정희의 집권기간(군사정권 시절 포함) 18년 5개월보다 6년 가까이 긴 시기 동안 만민지상의 자리를 지켰다. 따라서 정조의 아들 순조가 만 10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외척의 전횡 등 문제가 많았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조의 통치기간이 짧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라고 일컫는 영·정조 통치 기간은 도합 76년에 이른다.

조선 왕사망 연령은 평균 46.1세

조선 국왕 27명의 사망 연령을 평균내어 보면 46.1세이다. 숙부 세조에게 살해당해서 제 명을 채우지 못한 단종을 제외하면 47.3세이다. 정조는 평균 정도 산 셈이다. 생몰연대를 알 수 있는 왕자(대군/군)와 왕녀(공주/옹주)의 수명은 평균 30세 가량이다. 피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제외한 수치이다. 왕자(97명)는 31세, 왕녀(86명)는 28세 정도 된다. 따라서 조선의 국왕들은 다른 왕자들보다 16년 정도 더 산 셈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왕들이 모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영·유아기(0~4세)를 지나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순조의 아들 현종이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만 7세 때였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의 수명을 말해 주는 자료는 아직 발굴된 바 없다. 영국·프랑스·스웨덴 등의 자료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의 수명은 기껏 30세 또는 그 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50세까지 사는 남성은 약 20%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정조는 결코 명이 짧았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 형편으로는 상당히 장수한 편에 속한다.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읽는다면 역사의 진실을 놓치게 된다. 단지 이러한 사례뿐이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다산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다산연구소 제공

교촌치킨

OPEN 전곡점

RED SERIES

교촌 레드 시리즈 (매콤한 맛)
교촌레드오리지날
교촌레드스틱(날개)
교촌레드윙(날개+봉)
교촌레드콤보(날개+봉+다리)

ORIGINAL SERIES

교촌 시리즈 (마늘과 간장의 맛)
교촌오리지날
교촌스틱(날개)
교촌윙(날개+봉)
교촌콤보(날개+봉+다리)

HONEY SERIES

교촌 허니시리즈 (달콤한 맛)
교촌허니오리지날
교촌허니콤보(날개+봉+다리)

KYOCHON FRIED

교촌후라이드 (바삭한 맛)
교촌후라이드

SALSAL SERIES

교촌 샐살시리즈 (고소한 맛)
교촌샐살(가슴살+정육)
교촌소이샐살

KYOCHON SIDE

교촌 사이드 메뉴
교촌웨이김자
교촌샐러드

199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 구직 희망자 모집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14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 및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대체인력선발을 통해 인력풀을 구성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직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직종 :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서무·회계,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사서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 전반

□ 지원방법

- 서류 접수 : 우편 및 방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503호), 이메일(welpiaedu@welpia.or.kr)접수
- 접수 기간 : 수시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등
- 문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체인력지원센터 (032-883-1773)
- * 대체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www.welpia.or.kr) 공지사항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AG 중계 광고 안 팔리네”... 방송 3사 올상

국제적 이벤트에 특수는커녕 브라질 월드컵 이어 판매율 부진 인기 종목 위주 편성·스타 해설자 진행 미숙 등 시청자 불만소리

특수는커녕 손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14인천아시아게임 폐막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 중계한 지상과 방송 3사의 표정은 밝지 않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면서 나름대로 흥행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흥행도 안 됐고, 광고도 안 팔렸다. 그런데다 ‘인기 종목 위주로 중계한다’, ‘경기 도중 중계를 끊었다’ 등의 비난도 나오고, 아이없는 자막 실수와 이통값을 못하는 스타 해설자들의 말실수도 잇따르면서 이래저래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아시아게임까지 손해-인천아시아게임 광고 판매 부진은 지난 6월 브라질 월드컵 흥행 실패에 이은 것이라 방송 3사 입장에서는 더욱 타격이 크다.

이번 대회는 중계 시차는 없지만 중목이 방대하고 대다수가 비인기 종목이라 광고 판매는 시원치 않았다. 기대했던 박태환이 금메달 사냥에 실패해 대회 전체의 분위기가 ‘봄 업’ 되지도 못했다.

SBS 관계자는 “광고 판매율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 여러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국민적 관심도 낮다”고 덧붙였다.

▶“비인기 종목 확대” vs “채널 선택권 무시”-안방

에서 열리는 아시아게임이라 다른 대회보다 방송사들이 경기 중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인기 종목 위주로 편성을 하는 게 사실. 그러다 보니 비인기 중목을 확대하고, 금메달이 아니면 중계 도중 끊어버린다는 등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적으로 지난 23일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거머쥔 배드민턴 남자 단체전은 TV에서 볼 수가 없었다. 장시간 중계를 해야 하는 까닭에 방송 3사 어디도 중계를 하지 않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반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야구 경기의 경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피같은’ 주말 예능과 드라마를 희생하면서까지 생중계를 해 대조를 이뤘다. 그에 ‘화답’해 27~28일 주말 이틀간 펼쳐진 야구 경기의 시청률은 모두 20%를 넘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기 중계 시청률이 단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두세 개 채널에서 한 경기를 동시에 중계하



주말 예능과 드라마가 결방한 가운데 지난 27~28일 중계된 AG 야구 준결승-결승 경기는 모두 시청률 20%를 넘었다.

면 전과 낭비라고 비난했던 시청자들이 이번에는 채널 선택권을 무시했다고 불만을 내놓기도 하는 것이다.

▶자막 실수·해설자 진행 미숙 등 논란-이런 상황에서 매끄럽지 않은 중계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KBS 1TV는 남자 접영 100m 결승 중계에서 한국 대표팀의 장규철을 소개하면서 일장기와 일본의 영문 약자인 ‘JPN’을 자막으로 내보냈다. 25일

에는 SBS TV가 여자 배구 한일전 하이лай트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대한일본’으로 잘못 표기했다.

해당 자막은 수분 지속되다 ‘대한민국’으로 수정됐다. 여기에 방송사들이 았다튀 영입한 스타 해설자들의 진행 미숙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호, 이승엽, 이종범 등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대거 해설자석에 앉았지만 캐스터와 호흡이 안 맞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 빈축을 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30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1:10 국군의 날 특집 <이주 특별한 우리들의 병영일기>	6:00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7:00 굿모닝 대한민국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9:40 여유만만 10:50 지구촌 뉴스 11:15 사랑의 가족 11:45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5-6화>	5:00 MBC 뉴스 5:10 TV특종 놀라운 세상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8: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10 좋은 아침 9:30 SBS 뉴스 11:00 SBS 생활 뉴스 12:00 SBS 12뉴스 12:30 달콤한 나의 도시 1:30 파이스토리2 2:00 인천 2014 -태권도 男 80kg, 87kg, 女 46kg, 57kg 준준결, 준결 -배구 男8강 (진출시) 5:30 인천 2014 -태권도 男 80kg, 87kg, 女 46kg, 57kg 결승 -리듬체조 개인 예선, 단체 결선	5:00 SBS 뉴스 5:10 굿모닝 510 6:00 모닝와이드 <1-2부> 8: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10 좋은 아침 9:30 SBS 뉴스 11:00 SBS 생활 뉴스 12:00 SBS 12뉴스 12:30 달콤한 나의 도시 1:30 파이스토리2 2:00 인천 2014 -태권도 男 80kg, 87kg, 女 46kg, 57kg 준준결, 준결 -배구 男8강 (진출시) 5:30 인천 2014 -태권도 男 80kg, 87kg, 女 46kg, 57kg 결승 -리듬체조 개인 예선, 단체 결선	6:00 생방송 OBS 7:25 특별한 연예 뉴스 8:15 건강요리대백과 <마님과 식탁> 8:45 사람, 산 9:45 OBS 뉴스 3:00 올니극장 <이것이 인생> 10:30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1:30 TV 주치의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5:00 World News Review 40 엄마없이 살아보기 6:10 세계의 눈 7:00 시계마을 타기특 30 책과 팜 4:5 로보카 폴리 8:00 당동영 유치원 35 방귀대장 뽕뽕이 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40 부모 10:1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4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0	9: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30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1:10 국군의 날 특집 <이주 특별한 우리들의 병영일기>	2:00 KBS 뉴스 타임 2:10 퀴즈쇼 사총사 3:00 후두스 잃어버린 숲 3:25 유후와 친구들 2 3:55 TV 유치원 콩다콩 4:25 위기탈출 남버린 5:30 2014 인천아시아게임 -리듬 체조 개인 예선, 팀 결승	12:00 MBC 정오 뉴스 12:2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1:30 2014 인천아시아게임 -탁구 혼합복식 준준결승 4:00 응개 소나타 4:30 목?퐁! 키즈 스킵 5:00 MBC 이브닝 뉴스 5:30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핸드볼 여자 결승 <대한민국:일본> -농구 남자 준결승 <대한민국:일본> -농구 남자 예선	8:30 SBS 8뉴스	6:00 다큐월드 <글로벌 비전> 6:55 으랏차차 7시 7:45 OBS뉴스 M 8:25 오늘의 월드뉴스 8:55 특별한 연예뉴스	12:00 EBS 정오 뉴스 10 EBS 초대석 1:10 부모 광장 50 뽕뽕뽕 뽕뽕 2:00 시계마을 타기특 45 미앤미로봇 3:30 정글북 4:00 당동영 유치원 45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5:00 방귀대장 뽕뽕이 30 로보카 폴리 45 뽕뽕뽕 뽕뽕
12	12:00 KBS 뉴스12 12:55 바론말 고운말 1:00 우리말 겨우기 1:55 TV 동화 빨간 자전거 2:00 여기는 인천 5:00 KBS 뉴스 5:20 동물의 세계 5:40 여기는 인천	8:55 버타민	10:00 MBC 뉴스데스크 10:3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11:45 황금여장 라디오 스타 1:05 MBC 뉴스 24 1:25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2:40 나눈 행복 3:4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4:35 리얼 스토리 눈	9:25 인천 2014 10: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15 달콤한 나의 도시 12:35 나이트 라인 1:05 인천 2014 하이라이트 2:05 SBS 컬러클럽 3:05 접착! 무비월드 스페셜 3:35 자기가-백년 손님	9:45 리얼 대탐험 10:40 OBS 京IN 뉴스라인 11:05 나는 전설이다 II 12:05 나는 전설이다 I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맛 나는 세상>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크 프라임 10:45 극한 직업 11: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10 한국영화특선 <클래식>
4	5:20 동물의 세계 5:40 여기는 인천	10:0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11:1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12:30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1:30 한국의 법상	10:00 MBC 뉴스데스크 10:3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11:45 황금여장 라디오 스타 1:05 MBC 뉴스 24 1:25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2:40 나눈 행복 3:4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4:35 리얼 스토리 눈	9:25 인천 2014 10: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15 달콤한 나의 도시 12:35 나이트 라인 1:05 인천 2014 하이라이트 2:05 SBS 컬러클럽 3:05 접착! 무비월드 스페셜 3:35 자기가-백년 손님	9:45 리얼 대탐험 10:40 OBS 京IN 뉴스라인 11:05 나는 전설이다 II 12:05 나는 전설이다 I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맛 나는 세상>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크 프라임 10:45 극한 직업 11: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10 한국영화특선 <클래식>
6	8: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10:0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11:1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12:30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1:30 한국의 법상	10:00 MBC 뉴스데스크 10:3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11:45 황금여장 라디오 스타 1:05 MBC 뉴스 24 1:25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2:40 나눈 행복 3:4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4:35 리얼 스토리 눈	9:25 인천 2014 10: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15 달콤한 나의 도시 12:35 나이트 라인 1:05 인천 2014 하이라이트 2:05 SBS 컬러클럽 3:05 접착! 무비월드 스페셜 3:35 자기가-백년 손님	9:45 리얼 대탐험 10:40 OBS 京IN 뉴스라인 11:05 나는 전설이다 II 12:05 나는 전설이다 I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맛 나는 세상>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크 프라임 10:45 극한 직업 11: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10 한국영화특선 <클래식>
9	9:00 KBS 뉴스9 10:00 성로병사의 비밀 10:50 숲 터 11:00 KBS 뉴스라인 11:40 불멸의 이순신 12:50 네트워크 기획-문화산책 1:30 국군의 날 기획 다크 공작 2:10 결혼해주세요 3:10 이야기가 있는 풍경 3:50 KBS 파노라마 플러스	10:0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11:1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12:30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1:30 한국의 법상	10:00 MBC 뉴스데스크 10:3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11:45 황금여장 라디오 스타 1:05 MBC 뉴스 24 1:25 2014 인천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2:40 나눈 행복 3:4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4:35 리얼 스토리 눈	9:25 인천 2014 10: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15 달콤한 나의 도시 12:35 나이트 라인 1:05 인천 2014 하이라이트 2:05 SBS 컬러클럽 3:05 접착! 무비월드 스페셜 3:35 자기가-백년 손님	9:45 리얼 대탐험 10:40 OBS 京IN 뉴스라인 11:05 나는 전설이다 II 12:05 나는 전설이다 I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맛 나는 세상>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크 프라임 10:45 극한 직업 11: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10 한국영화특선 <클래식>

종합편성제일-케이블

	중편	드라마	영화	연예 오락	스포츠	뉴스
중편	◇JTBC 07:20 JTBC NEWS 아침 & 10:00 유아식상발자 14:45 3시 상황실 사건 반장 17:00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룸 23:00 님과 함께	◇KBS드라마 06:40 빠꾸기 동지 08:40 연애의 발견 11:20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13:20 가족끼리 왜 이래 18:00 고양이는 있다 22:00 슈퍼맨이 돌아왔다	◇OCN 10:50 미디어 시즌4 12:50 판상 15:50 뽕뽕 뽕뽕 17:50 대한민국 1% 19:50 백발마녀전 21:30 인디펜던스 데이	◇Mnet 08:00 M morning 11:00 Mnet Music Twit 15:40 Daily Music Talk 17:00 문화계의 순결한 15 20:00 Live on M 23:30 MIX & MATCH	◇KBS N 스포츠 08:00 2014 인천AG-여기는 인천 <남 사격 스키트 결선 외> 17:20 2014 인천 아시아게임 <여자농구준결승> 19:20 2014 프로야구 <SK:한화, 대전>	◇News Y 08:00 뉴스 다이제스트 10:40 명천형의 시사타치 12:40 뉴스현장 16:50 뉴스워치 20:50 뉴스 Review 22:25 글로벌 투데이
드라마	◇TV조선 06:50 TV조선 뉴스 7 09:40 김경일의 신통병통 14:15 돌아온 저격수다 16:30 장성민의 시사랭크 21:4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강제징	◇MBC드라마넷 05:00 이산 07:50 내 생애 봄날 16:30 모두 다 김치 18:00 고양이는 있다 20:40 아빠 어디가? 시즌2	◇채널CGV 09:30 캐슬 시즌6 14:10 스노 오브 락 16:10 천하탈춤 앙가장 18:00 파퓰러 캐터웨이 20:00 조조-황제의 반란 22:00 심야의 FM	◇코미디TV 08:25 코미디 빅리그 11:40 개그콘서트 13:20 마이 시크릿 호텔 16:20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19:55 무한도전 23:20 TV 동물농장	◇MBC 스포츠 플러스 09:00 2014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vs 캔자스시티> 15:30 2014 인천 아시아게임 남자농구 준결승전 <SK:한화, 대전> <두산 vs KIA, 광주>	◇YTN 06:58 뉴스 오늘 11:58 뉴스이슈 13:58 호준석의 뉴스인 15:58 뉴스Q 17:58 이브닝 뉴스 21:52 뉴스나이트
영화	◇채널A 08:00 굿모닝 A 10:10 시사인사이드 14:40 직언직실 16:55 레드나뭇 21:30 채널A 종합뉴스 23:00 내조의 여왕	◇SBS플러스 08:30 끝없는 사랑 11:20 청담동 스캔들 14:10 비밀의 문 17:50 사랑의 불고개 19:20 힐링캠프 22:00 TV 동물농장	◇스크린 11:00 살인자 13:00 월드 마운틴 16:00 윈드 투커 19:00 무간도 21:00 침묵의 목격자 23:00 보드워크 엠피어 시즌5	◇tvN 07:00 연애말고 결혼 09:40 노란복수초 12:20 마이 시크릿 호텔 16:30 오늘부터 출근 20:50 강용석의 고소한 19 23:00 더 지니어스:블랙가넷	◇SBS 스포츠 10:00 인천 2014 남자축구 <준결, 대한민국:미국> 15:30 인천 2014 남자배구 18:20 2014 프로야구 <SK:한화, 대전> 22:00 2014 베이스볼S	◇MTN 07:50 굿모닝 중시 Q 09:50 마켓 파워타임 13:10 오후의 투자전략 15:40 증권하드타임 18:00 MTN 투데이 21:30 대박투데이 930

오늘의 운세 10월 1일(일요일 9월 8일)

(검색창:수원형학작명) 심재현 원장 / 靑鶴道人 ☎010-5393-0358

36년생 48년생 60년생 72년생	알더라도 나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억울하면 소송도 불사해야한다. 손안에 들어온 것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재물이 생기고 활기가 차오르겠다.	39년생 51년생 63년생 75년생	매사 순조로우니 뜻을 이루겠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결과가 좋다. 배, 항공기 타는 것 주의하세요. 가족의 건강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42년생 54년생 66년생 78년생	하나로 만족하면 행복이 가득 하겠다. 힘과 체력이 약하니 큰일은 안 된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만족하라. 농담이 지나지면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다.	45년생 57년생 69년생 81년생	천과 지가 충돌하니 두 쪽으로 흩어진다. 그동안 아끼던 사람이 찾아오겠다. 있고 있던 사람이 찾아오는 날. 진취성을 갖고 추진하면 운이 열리겠다.	성명학의 數理 28수리. x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으로 조년을 자초해 불길에 휩싸이는 수리 일평생 고통이 끊이지 않으며 악운을 피할 수 없는 조난운을 가진 수리다.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서 영동하고 까다롭다. 배척, 재액, 곤란을 초래하고 재난과 영화가 꼬리를 물고 따라다닌다. 일평생 행복하기가 아주 어렵고, 여인은 갈망질망하며 대부분 고독하고 과부운에 빠진다.
37년생 49년생 61년생 73년생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라. 건강주의하고 매사 차분하게 처리하라.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잘 안 따라줄 듯. 재물과 노력을 허비할 듯.	40년생 52년생 64년생 76년생	조언을 아끼지 말라. 모든 모임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동안 감추어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위기를 모면한다.	43년생 55년생 67년생 79년생	건설적인 일을 시작할 것.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할 것.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으로 유익을 취해볼 게 좋을 듯.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	46년생 58년생 70년생 82년생	너무 쉽게 생각하고 화내지 말 것. 마음은 낭랑 18세. 공과 사를 구별해야 문제가 없었다. 구체적 계획 없이는 열일하지 말 것.	
38년생 50년생 62년생 74년생	만족감 느끼는 날. 좌우가 불길하고 흉흉하니 몸조심하라.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겠다. 동남쪽으로 가면 질병이 들어온다.	41년생 53년생 65년생 77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보답을 받겠다. 아랫사람의 말이라도 바른 말이라면 받아들일 것. 독단처리는 후일 원망만 산다. 이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44년생 56년생 68년생 80년생	오래전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다. 일의 좋지 못한 결과가 건강 해질 수 있으니 조심. 소망사항에 대해 정성을 쏟아보아라. 만년 사람의 배신이 우려된다.	47년생 59년생 71년생 83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고수하라. 급하게 서두르면 잃는 것이 많아지겠다. 업무적인 일로 멀리 출장 갈 일 생기겠다. 가까운 사람이 본의 아니게 방해할 수 있다.	

유림

YULIM PRINTING HIGH QUALITY COLOR PRESS & PUBLISHING

인쇄전문 교육관계기관, 관공서, 기업체, 각종 판촉물, 상패, 현황판 제작

대표서창욱 인천시 남구 송의동 129-62 TEL 032)881-4380 FAX:032)881-4379



지난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무대.

농밀한 리듬의 스펙트럼 '가을밤'을 감상다



'재즈의 전설'들이 3일부터 5일까지 가평 자라섬 무대에 오른다.
1. 옐로 재즈.
2. 도미니 밀러.
3. 엘런 홀스워스 밴드.

덥고 가을이 우리를 지치게 했던 여름이 물러나고 가을이 동구 밖까지 들어섰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름의 자리를 상큼하고 달콤하게 채워줄 재즈가 찾아온다.
부드럽고 때론 격정적이며 편안함을 안겨 주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하 자라섬재즈)이 오는 3~5일 가평 자라섬 일대에서 열린다.
11회째를 맞는 자라섬재즈는 아시아 최고의 재즈축제답게 마에스트로(maestro)의 정열적이고 뜨거운 리듬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자라섬, 그 자체만으로 음악이다
자라섬재즈는 자라섬의 자연적인 공간과 때론 격정적이고 부드러운서도 달콤함을 주는 재즈가 어우러져 매력과 감동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제다.
자라섬과 가평은 전 지역이 자연생태공원이라 불릴 만큼 싱싱함과 푸르름이 가득한 곳이자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렘이 이는 곳이다. 이곳에 자리를 깔고 앉으면 모든 것이 음악이 되고, 모든 음악은 자유와 안정을 주고 기쁨을 가져와 심호흡한 번으로 아픔과 스트레스가 치유된다. 재즈를 몰라도 좋다. 자라섬의 모든 공간, 시간, 공기가 이미 음악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라섬재즈는 가을을 더 농밀하고 숨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우리 가슴을 축축이 채워 주는 마력을 갖고 있다.

최정상 마에스트로들이 빛내는 황홀경
매년 세계 최정상의 마에스트로들을 초청해 라인업 발표 시부터 주목을 받는 자라섬재즈는 올해도 재즈의 전설들이 관객과 호흡을 맞춘다.
자라섬재즈에는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 불리는 마에스트로들이 관객과 호흡하며 어깨동무를 이뤄 낸다. 그 이름만으로도 두근두근대는 파키

토 드리베라, 옐로 재즈, 도미니 밀러 등은 현존하는 연주자들 중 가장 완벽한 연주를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는 마에스트로다.
12차례에 걸쳐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고 클라리넷도 동시에 연주하는 파키토 드리베라는 올해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라틴 재즈앨범을 수상한 'Song for Maura'에서 함께한 트리오 코렌테와 무대에 올라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현재를 펼쳐 보인다.

**가평 3일부터 3일간 페스티벌
옐로재즈·파키토 드리베라 등
30개국 정상급 연주자 51개 팀
격정·환상적 무대 선보일 계획**

팝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는 도미니 밀러도 자라섬재즈를 찾는다. 말리는 영화 '레옹'의 삽입곡인 셰이프 오브 마이 하트(Shape Of My Heart)를 만들고 연주했다. 그는 음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기타리프(짧은 구절을 되풀이하는 재즈연주법) 연주자로 평가받는다.
록과 재즈를 넘나들며 미래지향적인 개척자로 평가받는 엘런 홀스워스는 드러머 게리 허스밴드, 베이시스트 지미 하슬립과 함께 스페셜 프로젝트로 공연한다.
특유의 서정적인 피아니즘을 선보이는 스웨덴의 피아니스트 안 룬드그렌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하모니가 연주자인 그레구아르 미레와 함께 협연을 펼친다.

자라섬재즈가 매년 아심차게 선정하는 국가별 포커스에서는 올해 노르웨이를 집중 조명한다. 기타리스트 테레에 립달과 피아니스트 케틸 비외른스타드가 듀오로 공연하며 알리드 안데르센은 트리오로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노르웨이 재즈신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재즈 레이블 명가 ECM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재즈 강국으로 올해 노르웨이 포커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아티스트들로 구성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자라섬재즈에는 영국·쿠바·노르웨이 등 30개국의 정상급 연주자 51개 팀(해의 35개 팀·국내 16개 팀)이 가을을 환상으로 찾아올게 한다.

관객이 주인공!
자라섬재즈는 메인무대인 Jazz Island(자라섬 A무대)를 중심으로 Party Stage(자라섬 B무대), Festival Lounge(자라섬캠핑장 다목적운동장), Jazz Palette(가평읍사무소 앞), Jazz Cube A(가평읍사무소 앞), Jazz Cube B(옛 가평역사 앞) 등 총 11개의 무대가 선다. 각 무대는 걸어서 20분 내 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장르의 재즈를 즐길 수 있다.
오프밴드 무대도 운영된다. 국내외 실력 있는 신인 밴드를 위한 이 무대는 60개 팀이 참여해 재즈뿐만 아니라 월드뮤직·팝·록·힙합 등 다양한 음악을 선사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자라섬을 음악의 섬, 상상의 섬으로 만들게 된다.

페스티벌의 교과서
자라섬재즈는 지자체와 민간 사무국, 주민이 삼위일체가 돼 만들어 낸 국가대표 축제다. 자연 생태공간에서 최고의 뮤지션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해 관객과 하나되는 이 축제는 지역 경제를 살피우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

역의 농·특산물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축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새로운 상품이 선보이고 자부심까지 높이고 있다.
자라섬재즈에는 보너스가 있다. 티켓 1매당 5천 원권의 가평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축제장은 물론 가평지역에서 마트와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현금과 같다.
특히 재즈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킨 자라섬재즈는 재즈 마니아는 물론 재즈를 모르는 사람도 동화시켜 가는 어깨동무 축제로 자연, 가족, 휴식, 음악이 어우러져 피크닉형 축제문화를 창출해 냈다. 문화지도도를 바꾸고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라섬재즈는 축제 전에 꼭 봐야 할 축제로 손꼽힌다.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재즈 진수성찬
자라섬재즈는 열한 개의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Jazz Island(자라섬 A무대)와 Party Stage(자라섬 B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무대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는 축제의 주인공인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자라섬재즈 축제장은 접근성이 좋다. 준고속 열차인 ITX-청춘열차를 타면 서울 교통 중심인 용산에서 가평역까지는 58분, 청량리에서는 40분이면 가평역에 닿는다.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춘천행 버스를 타면 가평 버스터미널까지 58분 소요)
200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고 있는 자라섬재즈는 지난해 관객 수 27만 명을 포함해 누적 관객 146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라섬재즈는 3일 오후 4시 30분 Jazz Island 무대에서 자라섬 크리에이티브 뮤직캠프를 시작으로 3일간 축제에 빠져든다.
가평=엄건성 기자 gsuim@kjhilbo.co.kr

함께하면 행복한

제41회 성남시 중원구 체육대회

제10회 중원 한마당축제

경품
김치냉장고, LED TV, 세탁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무선핸드청소기, 자전거 등 다수

▶ **일시** : 2014. 10. 9(목) 09:00
▶ **장소** :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
▶ **내용** : 체육대회 - 동대항 경기, 참여경기
한마당축제 - 연예인초청공연, 구민 노래자랑, 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 부대행사 등
▶ **주관** : 성남시 중원구 체육회 및 중원한마당축제 추진위원회

출연MC

김미화

김태호

김중석

축하공연

조항조

전미경

유진백

박아랑



수원시 만석공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 희망한마당

수원시는 30일 송죽동 만석공원 내 제2야외음악당에서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희망한마당을 개최했다.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업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마트·삼성전기 등 관내 민간기업체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일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유공자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관내 기업체 및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원시에 소재한 각 분야별 기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희망나눔 무료 체험(한지공예·방향제 제작·페이스 페인팅·네일아트 등) 부스가 운영돼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이 갖는 역할과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했다.

심연구기자 sims@khihoilbo.co.kr



인천본부세관, 부정부패 척결 자정결의대회

인천본부세관은 30일 부정부패 척결 및 비정상의 정상화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엄정한 공직기강과 투명한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관세국정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는 인천세관의 추진의지를 다짐했다.

또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이순신 연구가로 유명한 '진심진력'의 저자 박종평 강사를 초청,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시련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의 자세(進), 거짓 없는 진정성(眞), 마음을 다해 끝까지 살아내는 자의 자세(盡) 등 이순신 장군의 성공 비결에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덕목을 배웠다.

배종진 기자 jongjin@khihoilbo.co.kr



수원문화재단-경기관광공, 문화·관광 업무 협약

수원문화재단 김경수 대표이사외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30일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비롯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 개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문화·관광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연구기자 sims@khihoilbo.co.kr

송이섭 고양시 행정지원국장 40년 공직 생활 마감

"젊음을 바쳐 40년 걸여온 길이기에 아쉬움은 남지만, 인생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합니다."

지난 1975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디며 40년 동안 울곧게 명예로운 공직자의 상을 심고 30일 명예퇴직된 고양시 송이섭(60)행정지원국장.

송 전 국장은 1997년 옛 내부부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전 시과장으로 전임한 뒤 18년 동안 고양시에서 마두1동장, 행정혁신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정책기획담당관, 교육문화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어 2013년 행정지원국장을 맡아 시의 투명한 예산편성과 대외회 관계의 두터운 협력을 견인하는 등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다가 이날 명예퇴직했다.

특히 이날 송 전 국장은 지방공무원 부이사관으로 추대됐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큰 그는 퇴임사에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취미 생활과 친구 관계 등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MICE 산업 육성 활성화·관광 인프라 확충 온힘”

인터뷰 임창열 킨텍스 제6대 대표이사 첫 경영비전 제시

아시아 빅4의 위용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의 제6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신임 임창열(70·전 경기도지사)대표이사가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경영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대표는 “킨텍스는 대한민국 MICE산업의 메가로 제2의 도약을 이뤄 낼 것이다”라며 “오랜 관록을 바탕으로 쌓아 온 소중한 경험과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킨텍스가 우리나라 MICE산업 발전에 공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실제로 임 대표는 지난 2001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고양시에 킨텍스를 유치한 장본인으로, 100만㎡ 상당의 한류월드를 조성해 지금 고양시가 갖는 두터운 MICE산업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힘든 시기로 기억되는 'IMF 사태', '외환 위기' 때 경제부총리를 맡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낸 당사자로서 최근 불거진 킨텍스의 어려운 상

황을 타개할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MICE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육성책에 대한 신개념 경영비전을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춘 경영'으로 제시한 그가 밝힌 구체적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강은 어떠신지.

▶아침 5시에 기상해 오후 11시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데도 아직은 그다지 피곤한 줄 모른다. 이처럼 강건한 체력을 주도록 킨텍스가 우리나라 MICE산업 발전에 공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킨텍스 조직 운영의 방침은.

▶우리 킨텍스의 인적 자원들은 그 역량이 어느 기관과 대기업에 견줘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매우 우수한 인재풀을 갖추고 있다. 이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다만,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수준의 감사를 받다 보니 구성원들의 역동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인프라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임기내 모든 노력할 것 광역교통망 환승센터 필요 'GTX 연장'사업 착공 시급

의 개선이다. 현재 킨텍스의 접근성은 자유로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로, 이는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킨텍스를 고양시의 교통거점으로 활용한 광역교통망(공항버스 포함) 환승센터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늦춰지고 있는 GTX 연장사업을 하루속히 착공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처럼 발판을 안 잡고 준공시켜야만 한다. 또한 고양시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제가 오자마자 이를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 지금 실질적인 단계에 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영비전은 무엇인가.

▶우선 직제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킨텍스를 찾는 해외 방문객들을 위한 10만 원 미만의 중저가형 비



즈니스호텔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겠다. 제 임기 중 이 호텔부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제가 취임 이후 직원들의 식사가 부실한 점을 보고 개인이 1천 원만 내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 1만 원 수준의 식사를 하도록 했다. 잘 먹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국가적 대위기를 초래한 IMF를 극복하면서 제 별명이 '위기의 남자'로 불렸지만 '비상근로조위원장'이란 별칭도 있는데 앞으로 저를 비롯해 전 직원이 킨텍스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인천재능대 유통·식음료 취업문 열린다

CJ그룹과 인재매칭 MOU NSC 교육 이수 우선채용

인천재능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기업·특성화전문대학 인재매칭' 사업의 1차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30일 CJ그룹, 특성화전문대학 10곳과 대립대학 흥지관에서 'CJ그룹·특성화전문대학 인재매칭'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난 6월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 77곳 가운데 10곳만이 사업을 위해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김신호 교육부 차관, 이준영 CJ(주) 부사장,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 10개 대학 총장 및 학생 350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CJ그룹 12개 계열사의 30개 직무를 대상으로 NCS(국가 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해 이직 수준에 도달한 전문인력을 CJ그룹이 우선 채용한다는 것이다.

인천재능대는 우선적으로 유통물류과와 호텔관광과가 참여해 CJ그룹의 CJ대한통운(공급망관리), CJ건설(코스관리, 식음서비스) 등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인재를 양성하고 30명의 졸업생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인천재능대는 6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복합산업 분야 특성화전문대학(II유형)'에 선정, '인천지역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을 선도할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표로 ▶호텔관광서비스 ▶공항공항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교육복지서비스 ▶IT·BT서비스 등 5개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서비스산업 연계형 취업플랫폼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직무능력연성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유탁 기자 cyt@khihoilbo.co.kr



NH협은행 화성시지부-마도농협, 협약 체결

내고장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힘보태

NH협은행 화성시지부와 마도농협, 화성시 마도면은 30일 마도농협에서 '2014년 화성시 내 고장 농산물 소비 확대'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 농업 발전, 화성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

해 추진됐다. 김윤배 마도농협 조합장은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용에 감사드리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지속적인 소비 촉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고양교육지원청, 내고장 바로 알기 체험

행주산성 돌아보며 역사속으로 발걸음

고양지역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선 교육공무원들이 학생들에게 내 고장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정명 600년의 고양 역사의 숨결을 찾아나서 눈길을 끌었다. 30일 고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고양교육행정스쿨 내 고장 바로 알기'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역사 체험은 소속 교육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현장 체험은 고양시청에

서 추천한 문화해설사와 함께 고양지역 유명 유적지인 최영 장군 묘역, 벽제관지, 행주산성, 행주서원 등을 차례로 도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들은 최영 장군 묘역을 찾아 청렴의식을 다잡았으며, 행주대첩의 현장에서 행주열을 배우고 '민·관·군이 하나되는 협치'를 교육 현장에도 적용해 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수원 인계동에 '경기 공제회관' 문 열어

The-K 교직원공제회 개관 지역회원 서비스도 강화

The-K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역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30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지역 공제회관(이하 경기회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한 경기회관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과 공연장, 회의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목적 컨벤션홀은 소규모 공연과 세미나, 연극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회관 5층에 위치한 경기남부지부를 통해 저축과 대여, 보험과 같은 금융 관련 서비스 등 경기도내 교직원들의 행정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직원공제회는 경기회관 개관으로 앞으로 지역회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경기회관 개관으로 회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기회관이 지역 교직원들을 위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인천 중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7명에 전달



인천시 중구가 2014년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인 김숙자(60·연안동 주민자치위원)씨 등 7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구는 최근 자유공원에서 제23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어 사회봉사상 부문에 김 씨를 비롯해 조연호(57·용유동 통장)씨, 효행상 부문에 민임식(50·신흥동)씨에게 각각 시상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로상 부문에 박학범(58·영종초등학교장)씨, 산업진흥상

고대병원-인천보호관찰소 성폭력재범 방지 앞장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29일 고대 안산병원 대회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협약식은 차상훈 고대 안산병원장과 이우권 인천보호관찰소장,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 피치로 자에 대한 약물·심리치료와 약물치료 부작용 검사 등 전문적인 치료로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차상훈 원장은 "성충동 약물치료제



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산병원 직원 모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권 소장은 "고대 안산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과학적 관리로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을지대-한국중독전문가협회 공동연구 MOU

을지대학교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독 분야와 관련,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학술회의 개최 ▶중독전문 교육기관 인정 ▶상호 시설 및 자료 사용에 관한 지원 등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독 문제의 재활복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개설된 학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치료 및 재활을 돕는 전문가



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 중 618만 명이 '4대 중독'이라 불리는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에 중독됐다"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도움의 손길' 필요한 곳에 의료서비스·情 나눔 실천

웅진군-인하대 부속병원 진료·검진비 감면 등 혜택

인천시 웅진군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30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료협약을 통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감면과 장례식장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또한 외래진료 시 웅진군 접수 및 수납 전담 창구(10반)를 운영, 도서 주민의 시간 절약에 도움을 주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인하대병원은 웅진군 지역주민



을 위해 응급환자를 골든타임에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핫라인 이용 협약을 체결할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 군민 편의 제공과 군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종진 기자 jongib@khihoilbo.co.kr

K-water 과천권관리단 취약계층에 생필품 선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도권지역본부 과천권관리단은 지난 29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양시 공무원과 수자원기술(주) 임직원 등 20여 명과 함께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직원들이 모은 물사랑 펀드로 쌀, 과일, 방한 내의, 전기장판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식사 수발과 환경정비활동도 함께 했다.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정모(74) 할아버지는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쓸쓸해지는데, K-water 직원들



이 방문에 함께해 줘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병두 단장은 "K-water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어른 공경과 효(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

해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사하는 정(情)과 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hihoilbo.co.kr

비보이 무대 등 꾸며 '어울림 한마당' 활짝 파주 문산거리축제 성료

파주시의 대표 지역축제인 2014 문산거리축제가 이재홍 시장, 황진하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28일 양일간 문산시내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문산거리축제는 10년 전 문산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산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시작해 올해 9회를 맞았다. "사랑해요 문산! 함께해요 거리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색소폰, 비보이 등 다채로운 공연과 임진강 가요제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문산읍민을 포함한 관광객, 외국인기업, 다문화 가정, 사할린 동포, 새터민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어울려 가면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특히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축제를 주최한 이승규 문산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합된 문산지역 단체와 시민의 힘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가 5만여 문산읍민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주=유원선 기자 ws45@khihoilbo.co.kr



인사

▶안전자치행정국장 안충식 ▶주민지원국장 이근복 ▶자치행정과장 김재연 ▶종합민원과장 김형보 ▶회계과장 황주명 ▶문화체육과장 박성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 ▶환경보호과장 김동화 ▶자원관리과장 정택용 ▶건축과장 이철욱 ▶주택과장 정성원 ▶건설과장 김영민 ▶도시개발과장 오병관

결혼

▶한성우(한빛동·조혜연 씨 장남)군·민경란(민기원 경기농림진흥재단 전 대표이사·이정자 씨 장녀)양=10월 3일(금) 오후 2시 수원 호텔캐슬 1층 아모르홀. ☎010-6306-2701



안양시, KT 등 9개 기관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약

안양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9곳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GS파워㈜, 대한송유관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수치지형도 등 지하시설물과 관련한 공간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유관기관은 이를 토대로 최신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데이터 확보에 노력하게 된다.

또 지면 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시스템상의 GIS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면 즉각 갱신하는 등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조를 맞춘다.

안양=이정탁 기자 jilee6151@khihoilbo.co.kr



남양주 별내클린센터,美 LA시청 환경국 견학단 맞아

최근 미국 LA시청 환경국 공무원 3명이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별내클린센터를 견학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별내클린센터는 별내택지지구와 진접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인 병상장 등이 들어 서 있다.

미국 LA시청 환경국 견학단은 반입된 폐기물의 소각 및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배출가스의 처리 등 소각시설과 음식물을 메탄가스로 만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꼼꼼하게 둘러 보고, 발생하는 폐열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메탄가스 자체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별내클린센터 견학을 원하는 시민과 단체, 학교 등은 자원순환과 자원시설담당(☎031-590-2257)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윤덕진 기자 dsyun@khihoilbo.co.kr



포천 농축산물 소비자가족 체험행사로 우수성 홍보

포천시는 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 사업은 직거래 소비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포천시의 다양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려 체험하고 맛을 보며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체험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서울지역 소비자 가족 15가구와 함께 사과·포도 수확 체험 및 시식회를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사과와 포도를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도 거쳐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포천 농산물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포천시 로컬푸드 파머스마켓을 견학해 포천시 농산물의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는 행사도 병행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3015@khihoilbo.co.kr

나라의 기둥에 '사랑'을

가평군 어린이집 가족 행사 체육대회·뮤지컬 등 즐기고 올바른 육아법 교육도 진행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아이와 부모, 교사 간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평군은 30일 문화예술회관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집 아동과 부모, 보육교사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평군 어린이집 가족 한마음 큰잔치'를 열었다.

아동복지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이 행사는 가평군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고 가평군이 주최했으며 학부모와 각 어린이집 원장, 김성기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부모교육, 뮤지컬, 체육대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90분간 진행된 부모교육은 박은미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맡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을 나누고 올바른 육아법에 대해 강의했다.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뮤지컬 '미운 오리새끼'를 문화예술회관에서 1~3세, 4~5세, 6~7세 등을 대상으로 4번에 걸쳐 공연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성기 군수는 개회식을 통해 "어



린이는 지역사회의 보배이고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차 체력으로 좋은 생각, 큰 꿈을 지닐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가평군에는 38곳의 어린이집이 등록돼 있으며 270여 명의 보육교사가 1천80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m@khihoilbo.co.kr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30일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준결승전 북한과 이라크의 경기에서 북한 정일관이 골을 넣은 뒤 동료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난적 이라크 꺾고 결승전에 간다

북한 男 축구, 연장 접전 끝에 정일관 프리킥으로 골 성공 1대 0으로 준결승전 마무리

북한 남자 축구가 이라크를 이기고 결승전에 올랐다. 정일관은 8강전에 이어 4강에서도 시원한 중거리포 결승골로 북한에 승리를 안겼다. 3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이라크 남자 축구 4강전에서 북한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난적 이라크를 1-0으로 따돌리며 결승전 티켓을 손에 넣었다.

전반 16분 리허철은 간판 공격수 박광룡이 건넌준 볼을 드리블해 이라크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강력한 슈트를 날렸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은 골대 오른쪽 포스트를 살짝 벗어나며 관중석을 향했다. 이라크도 속공을 중심으로 북한의 공세에 맞섰다. 골키퍼에게 한 번에 공을 넘겨받은 미드필더 알문다피이 20m 가량 질주를 펼치다 북한 골대를 향해 핵심의 일격을 날렸지만 역시 골문이 따라주지 못했다.

전반 내내 공격을 주도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가던 북한은 전반 종료 직전 수비수 심현진이 30m 중거리포를 쏘지만 골대 중앙을 살짝 벗어났다. 전반전 양팀이 기록한 가장 강력한 유효슈팅이었다. 후반전 북한은 리허철, 윤일광을 빼고 소현욱, 조광을 잇따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후반 24분 이라크 진영 골대 어귀에 라인 앞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스트라이커 박광룡이 강력한 중거리포를 날렸지만 골대 중앙 포스트를 맞고 튕겨져 나오는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승부는 연장전에서 갈렸다. 전·후반을 0-0으로 마친 양팀은 연장전에 돌입했고, 연장 전반 5분께 기다리던 결승골이 터졌다. 승부사는 역시 정일관이었다. 정일관은 박광룡이 이라크 골대 바로 앞에서 얻은 프리킥을 시원한 한 방으로 이라크 골망을 갈랐다. 한편, 이날 북한 역대 영웅 엄운철·김은국·김은주가 경기장을 찾아 북한팀을 응원했으며 남북공동응원단과 통일이라방, 시민스포터스 등도 북한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봤다. <특별취재반>

세계챔피언 북한과 탁구대결 양하은·이정우 8강 진출 고배

김정·김혁봉에게 1대 3 패배

인천아시아게임 남북 탁구 대결에서 북이 먼저 웃었다. 한국 양하은(대한항공)·이정우(울산시탁구협회)는 30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아시아게임 탁구 혼합복식 16강전에서 북한 김정·김혁봉 조에 1-3으로 무릎을 꿇었다. 김정·김혁봉 조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이종목 챔피언이다. 당초 양하은·이정우 조는 쾌조의 성적으로 한국에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세계 최강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실력과 경험 면에서 격차가 컸다. 한국으로서 너무 이른 시기에 챔피언을 만난 것이 뼈아팠다. 비교적 신인인 양하은 역시 챔피언이자 남북 대결이라는 부담감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다. 양하은은 경기 뒤 가진 인터뷰에서 "실력과 경험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남북 대결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컸다"고 말했다.



수원실내체육관에서 30일 열린 2014아시안게임 탁구 혼합복식 대한민국 이정우-양하은 조와 북한 김혁봉-김정 조의 경기. 세트스코어 3-1로 패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팀이 패하긴 했지만 남북 대결인 만큼 마무리는 훈훈했다. 경기 뒤 양팀 선수는 서로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관중들 모두 수고한 양팀 선수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로 화답했다. <특별취재반>

정부, 7억~8억 원 상당 북한 선수단 인천 체류비용 지원키로

정부가 인천아시아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7억~8억 원 정도의 체류 비용을 지원한다. 30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 선수단이 경기 일정을 마치고 떠날 때 비용을 산출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체류비용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조직위는 지난 15일 정부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 경비와 숙식비 등을 지원 요청했다. 정부는 조직위를 통해 북측에 운영

비용 등 체류비용을 지원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체류비용 지원액은 대략 7억~8억 원 사이이다. 북한 선수단은 조정 등 장비 대여비를 일부 자비로 내긴 했지만 대회 참가비와 숙박료, 방송위성 송출 장비 임대료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선 북한 선수단에 8억7천만 원의 체류비용을 지원했다. <특별취재반>

“아시아 여자 축구의 맹주 가리자”

오늘, 북한 VS 일본 결승전

북한 여자 축구가 태극낭자의 뒤편까지 제대로 싸워 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에게 패배의 쓴잔을 안긴 북한 여자 축구팀이 일본과 결승에서 맞붙는다. 북한 팀은 4년 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에 0-1로 통탄의 패배를 기록했다. 이 때문인지 김광민 북한 여자 축구 감독의 우승에 대한 의지 또한 남다르다. 김 감독은 결승전을 하루 앞둔 30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 경기에서 일본 팀을 이겨서 꼭 1등을 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일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FIFA랭킹 3위이자 2011년에는 FIFA 여자 월드컵

김광민 北감독 “정신력 싸움 될 것… 반드시 1등 차지” 투지 밝혀 日감독 “결승을 목표로 AG출전… 4년 전 승리 경험 발판삼을 것”

에서 우승한 전통의 강자다. 올해 열린 여자 아시안컵 역시 우승트로피는 일본이 들어 올렸다. 자타공인 현재 아시아 맹주인 만큼 조직력도 탄탄하고 수비에 있어서도 철벽 방어를 자랑한다. 북한 여자 축구팀은 한국과의 준결승에서 막판 행운의 골을 얻으며 승리했지만 하루밖에 쉬지 않아 고갈된 체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도 관건이다. 김광민 감독 또한 이 점에 주안을 두고 있다. 그는 “선수들이 어떤 수준의 정신력을 보여 줄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2016년 올림픽을 자신감 있게 준비하는 데 금메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결승전에서 스피드와 한 박자 빠른 패스를 주무기로 일본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비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간간히 때려 주는 장거리포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의 준결승에서 종료 직전 쉐기골을 터트린 허은별은 눈여겨봐야 할 선수다. 이번 대회 북한 여자 축구 스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허은별은 벌써 3골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리예경, 라은성 등 기회만 있으면 시원한 골을 터트릴 한 방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일본은 한 수 위의 실력과 조직력으로 북한의 기세를 꺾겠다는 전략이다. 결승전에 먼저 안착해 북한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해 체력적인 이점까지 확보했다. 사사키 노리오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은 “결승을 목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며 “4년 전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일본도 약점은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대다수 선수들이 베스트 멤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은 2016년 월드컵을 위해 이번 대회부터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베테랑보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를 범할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 사사키 감독은 “매 경기를 치르면서 젊은 선수와 기존 선수들이 잘 융합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일본은 사카구치 미즈호, 오사푸네 카나, 스가사와 유이카가 등 빠른 발과 강력한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결승전은 1일 오후 8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다. <특별취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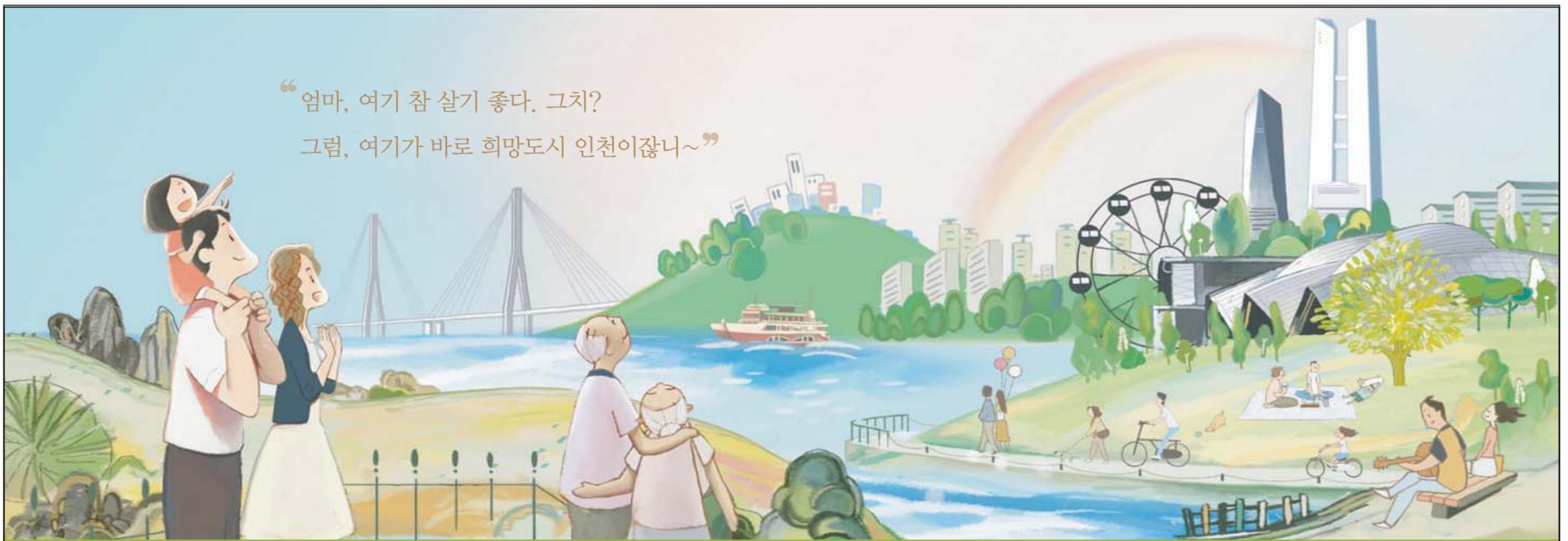
오늘 다시 만난 남북 평풍대결...女 복식 16강·男 단식 32강 ‘눈길’

북한 선수단은 1일 여자축구 결승, 남녀 탁구 등 2종목에 출전한다. 단연 하이라이트는 여자축구다. 4강전에서 남한과 혈투를 펼친 북한은 ‘한일전’에 나선다. 세계랭킹 3위인 일본을 맞아 어떻게 싸울지 주목해 볼 만하다. 탁구에서는 남북 대결이 펼쳐진다. 여자

복식 북한 리명선·김승희와 남한 전지희·이은희가 16강에서 맞붙는다. 남자 단식 32강전은 북한 최일과 남한 주세혁이 격돌한다. 혼합복식은 김혁봉·김정이가 나서 중국의 주유·우양을 8강에서 만나 대결한다. <특별취재반>

북한선수단 오늘의 열전

경기	새부종목	경기장	경기시간
축구	여자 결승 vs 일본	문학경기장	20:00
탁구	남자 단식 32강, 여자 복식 16강, 혼합복식 8강	수원체육관	14:00



“엄마, 여기 참 살기 좋다. 그치? 그럼, 여기가 바로 희망도시 인천이잖니~”

당신의 꿈을 담아 인천의 행복을 짓습니다

살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도시, 인천
소중한 당신의 일상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도록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의 꿈을 담아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일은 AG '별 중의 별' 뜰 날

최고의 스타 '삼성 MVP 어워드' 후보 8명 선정
대회 등록된 미디어 투표 거쳐 폐회식 날 발표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이 다가오며 대회를 가장 빛낸 선수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30일 대회 최우수선수(MVP) 선발을 위해 삼성 MVP 어워드 운영위원회를 열고 8명의 후보를 선발했다. MVP 후보로 선정된 선수는 팬심 남현희(성남시청)와

유도 김재범(한국마사회)을 비롯해 수영 4관왕 하기도 고스케(일본), 체조의 야오 진난(중국), 세팍타크로 피찬 수리안(태국), 사격 차오이페이(중국), 역도 김은국(북한), 스쿼시 니콜 엔 데이비드(말레이시아) 등이다. 삼성 MVP 어워드는 인천아시아게임 참가 선수 중 뜨거운 열정과 최고의 기량으로 대회를 빛낸 선수를 M

VP로 선정해 폐회식에서 시상하는 대회 공식 프로그램이다. 다관왕, 신기록 작성, 대회 연속 수상,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인천시, 조직위가 공동으로 스포츠 약소국의 기량 향상을 지원하는 비전 2014 프로그램 등을 통한 아시아게임 정신 구현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삼성 MVP 어워드는 대회에 등록된

미디어 투표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 오는 4일 발표한다.

인천조직위 관계자는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가 많으나 불가피하게 일정 인원만을 후보로 선발하게 됐다"며 "최고의 스타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미디어 여러분의 관심과 투표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외국선수 무단이탈 방지책 각국 올림픽위원회 관리반

네팔·팔레스타인 4명 잠적 중
불법체류 양산 오명 안을 수도
진담 빼는 조직위도 대책 전무
"저녁 이후 개별 제지는 힘들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외국 선수들의 잇따른 잠적에 진담을 빼고 있다. 30일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네팔과 팔레스타인 선수 4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회 초반부터 선수 잠적이 발생하면서 인천아시아게임을 이용한 의도적인 무단 이탈이 우려된다.

지난 24일 네팔 세팍타크로 선수 1명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네팔 유도 선수 2명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27일에도 팔레스타인 역도 선수 1명이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잠적하면서 행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를 두고 조직위도 당황하고 있다. 외국 선수들은 일반 입국자와 달리 각국 올림픽위원회(NOC)가 보증한 해당 국가의 대표 선수로 이 같은 사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자칫 아시안게임이 불법체류자를 양성했다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조직위가 이를 막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NOC가 인천아시아게임 전 선수들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 받아 놓은 선수규약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각 나라의 NOC에 철저한 선수 관리를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남은 대회 기간 동안 또 다른 이탈 외국 선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NOC조차 경기가 없는 선수들의 사생활을 24시간 감독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29일 경기가 없는 필리핀 선수 A씨가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연락을 취할 방법은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선수도 취업알선업체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잠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선수촌을 이용하는 선수들은 관광·쇼핑 등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북한처럼 자율 통제와 정부 요인이 붙지 않는 이상 NOC에서 선수 단속을 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인천 비전 프로 수혜국 선수들 도전 뒷얘기

활 당기고 쏘는 순간까지 감정 컨트롤하는 법 익혀

필리핀 양궁 첫 메달 탄 파울 말튼
컴파운드 전향 후 시행착오 딛고
전훈 통해 선수 자세 등 전수 받아

인천아시아게임에서 필리핀 남자 양궁 대표인 파울 말튼(28)에게 지난 27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필리핀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선사한 날이면서 그에게 28번째 생일이라는 뜻깊은 날이다.

하지만 말튼에게 이번 메달 획득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경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메달을 딴 것을 실감하지 못했다. 말튼은 "아직도 내가 메달을 딴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말튼의 애초 종목은 메달을 딴 컴파운드 가 아닌 리커브였다. 그는 "리커브와 컴파운드는 활 쏘는 방법부터 달라 사실상 리커브 경험은 그리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는 이번 대회에서 필리핀 양궁 사상 첫 메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에 대해 그는 체계적인 훈련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말튼의 메달에는 인천시가 8년 동안 스포츠 약소국에게 전한 '인천 비전 2014'가 중심에 있었다.



말튼은 "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활시위를 당기고 쏘는 순간까지 시간을 지키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전수를 받았다"며 "체계적인 훈련으로 진정한 선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지훈련에서 만난 박종숙 코치를 비롯한 인천 비전 2014 직원 여러분과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경험하게 해 준 인천시의 OCA에 고맙다"고 인사했다.

시합 중 가장 어려운 상대로는 전지훈련에서 함께한 한국 선수들을 꼽았다. "한국 선수들은 양궁 세계 최강으로 이미 전지훈련에서 강함을 느꼈다"며 "모든 경기가 힘들었지만 특히 한국이 양궁 강국이라서 일단 긴장감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키르기스스탄 복싱 주역의 뒤늦은 반격

남자복싱 밴텀급 8강 나선 오물벵
2회부터 중국 장지웨이 역습 허용
전훈 참여 후 성장... 아쉬운 패배

스포츠 약소국인 키르기스스탄에게 중국의 벽은 너무 높았다. 인천아시아게임 남자 복싱 밴텀급(56kg) 8강전이 열린 30일 키르기스스탄의 남자 복싱 유망주 오물벵(23)이 중국의 장지웨이(25)에 1-2로 아쉽게 패했다.

1회전은 오물벵이 장지웨이를 압도했다. 사각 링을 넓게 활용하면서 짧은 주먹을 날리는 전략을 선보였다. 급하게 주먹을 휘두르고 들어오는 장지웨이를 빠른 발을 이용해 맞받아치면서 유효타를 쳤다. 1회전 결과는 30-27로 오물벵의 완벽한 경기였다.

하지만 2회전부터 양상은 달라졌다. 1회전을 뺀 장지웨이는 2회전 중이 올리기 무섭게 왼손을 뻗었다. 오른손을 주먹으로 다루지 않게 위력이 실려 있었다. 당황한 오물벵은

안면과 복부에 정타를 허용하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이후에도 오물벵의 방어가 느슨해지면서 연신 유효타를 허용하는 실수를 범했다. 곧 반격에 들어갔지만 마지막 1초를 남겨 놓고 장지웨이의 왼손과 오른손 축을 안면에 허용하면서 쓰러졌다. 2회전은 장지웨이에게 돌아가면서 28-29로 패했다.

3회전은 시작부터 난타전 양상을 보였다. 난타전이 시작되면서 오물벵은 장기인 빠른 발이 묶이는 상황에 처했다. 오물벵이 안면과 복부, 또다시 안면을 허용하면서 크게 밀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3회전 중반을 넘어서자 장지웨이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물벵은 왼손 축과 오른손 축을 적중시키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시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으로 3회전 역시 27-30로 오물벵은 패했다.

오물벵은 2013년 인천 비전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참여 이후 실력이 급성장한 선수다. 2009년 월드챔피언십을 33위로 마친 그는 한국 전지훈련 이후 2013년 요르단 암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별취재반>

해외감독 지휘 속 한국팀 '웃거나 씩씩'

한국 선수단을 지도하는 해외파 감독이 성적에 따라 웃고 울며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의 코치 177명 중 외국인인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육상과 공수도·크리켓·스마 등 6개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웃은 이는 육상 대표팀에서 5년째 장대높이뛰기를 담당하고 있는 아르카디 시크비라(50)코치다. 한국신기록을



우크라이나 출신 아르카디 지도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3위 환호
크리켓 대표팀은 메달사냥 실패
이란 출신 코치 영입한 공수도
선수들 기초기술 다잡는데 주력
아시아게임 최초로 금 딸지 주목

같이치우며 한국 육상의 희망으로 떠오른 진민섭(22)이 지난 28일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동메달을 따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진민섭은 금메달 후보로 거론됐다. 비록 동메달에 머물기는 했지만 육상 불모지인 한국에 메달을 안기는 데 중시적인 역할을 한 데다, 그동안 육상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우수한 지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는 남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을 세운 세르게이 부브카의 개인 코치를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 한국의 선진 기술 도입에 많은 공을 세웠다.

아쉬운 성적도 있다. 크리켓 대표팀에 영국 출신의 줄리언 파운틴 등 3명의 외국인 지도자가 선수들을 지도했지만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메달 소식을 기대했던 크리켓 팬들의 바람과 달리 30일 열린 남자 8강전에서 스리랑카에 55-172라는 큰 점수 차로 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앞서 열린 여자 대표팀도 중국과 홍콩에서 예선전에 머물러야 했다. 한편, 아직 경기를 앞두고 있는 감독도



인천 강화군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30일 열린 2014 인천아시아게임 태권도 남자 74kg급 16강전에서 태국 실라 온 페라텔(위 사진 왼쪽)과 카타르 사드 아흐메드 마흐가 심판의 판정하는 손을 바라보고 있다.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인천 영종도 영종백운산MTB코스에서 열린 사이클 MTB 남자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각국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

있다. 비인기 종목인 공수도 국가대표팀은 이란 출신의 아흐마드 사피 코치를 2008년 지도자로 영입했다. 그는 수년 동안 한국

선수들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이란이 공수도 최강으로서 세계 정상급 수준을 갖고 있고,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3개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만큼 이번 인천아시아게임에서 최초로 금메달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하다. <특별취재반>

기자의 눈

최유탁/사회부

스포츠기자의 눈으로 본 AG 단상

인천아시아게임이 이제 며칠 있으면 끝이 난다. 참 아쉽고, 한편으로는 후련하다. 그런데 이 씩씩한 심정은 무엇일까?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한 기자로서 이번 인천아시아게임을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고 싶다.

성공의 측면은 선수, 관객 등 큰 사



고 없이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게임, 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는 것이 1순위다. 그동안 몇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었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므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피땀 흘린 선수들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하는 감동의 드라마가 연일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반면 실패는 '화합과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시아게임은 올림픽, 월드컵 등과는 달리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관계 기관 모두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야 했고, 시민 역시 참여와 관심으로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했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배려'다. 인천아시아게임은 시작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말썽이 있었다. 그러나 책임 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직위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인천시는 조직

위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하나같이 "내 탓이 아니요"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배려를 볼 수 있겠나?

결국 나라 망신이고, 인천 망신이다. 대규모 행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한 행사를 치르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수정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하고,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안아줘서 대회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필요했다.

아무쪼록 인천 대회가 세계 스포츠 역사에 훌륭한 대회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대회 관계자, 시민, 언론 등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산지역 상가연합회와 고잔신도시 지역상인회 회원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안산지역 상가연합회, 경제침체 대책마련 호소

가게 문 닫을 지경

세월호 참사 가슴아픈 일이지만 추모분위기가 장기화로 상권 침체 재난지역 선포했지만 상인 방치 활성화특별조례안 마련 등 요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추모분위기가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나 시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산지역 상가연합회와 고잔신도시 지역상인회 등은 30일 단원구 고잔동 삼성타운 2층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 “세월호 사고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 종업원 임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가게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조례” 제정과 전담부 설치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안산지역의 파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길거리(세월호) 불법 헌수막 제거, 재난특별지역에 따른 상가지원대책 마련, 안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조례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팀 구성,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가연합회 활동 적극 지원

회원을 운영한다는 한 상인은 “세월호 사고 이후 그동안 해마다 개최되던 지역의 많은 기념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꽃다발과 화환 등의 소비가 크게 감소해 결국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으며, 많은 상인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시의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조병돈 이천시장 막말 파문 통합 체육회 임원 워크숍서 행감자료 과다요구에 불만 견배사하던 시의원에 버력 의회 측 “시의회 모독 행위”

“시의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

조병돈 이천시장이 최근 통합된 체육회 임원들의 결집을 위한 워크숍에서 특정 시의원에게 막말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해당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버럭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A의원과 이천시체육회 관계

자 등에 따르면 이천시체육회·생활체육회는 지난 26일 신임 임원 및 이사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속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다.

첫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조 시장을 필두로 진행된 A의원의 인사말 도중 조 시장이 목청 높여 한마디 건네면서 발언이 됐다. A의원이 견배제의를 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다.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하자, 조 시장은 “야!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견배나 해”라고 소리를 질러 순간 행사장은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시장과 A의원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자 조 시장이 “행정사 무감사 자료를 왜 그렇게 많이 요구했다?”라며 결국 “시의원이 뭐 그

렇게 대단한가?”는 식의 비하성 막말 발언을 했다는 것.

이 자리에 함께 있던 K의원이 “시장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라고 맞대응하자 조 시장은 불쾌한 듯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K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은 의원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으로, 이를 두고 이래저래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시의회를 모독한 처사다”라며 “이 부문에 대해 사과 없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 의원은 “신분을 떠나 지역 선후배가 모인 편한 자리라 하더라도 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상대로 막말을 일삼는 것은 잘못된 처신”이라고 일갈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檢 “프로축구 수원삼성 정대세 선수 ‘국보법 위반’ 무혐의”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보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삼성 블루윙즈 소속 정대세(30)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선수의 입장을 여러 방법으로 충분히 들었고, 특수한

성장 배경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 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정대세는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보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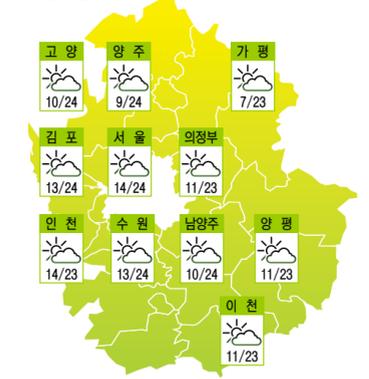
재일교포 출신인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종연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다. 당시 정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 수원삼성과의 계약 당시 국적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퇴출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달돋이 12:51
해질 18:16 달질 23:15
10월 1일(수)



가을비에 익어가는 오곡백화

가뭄 구름 많겠음. 아침 최저기온 7~14도, 낮 최고기온 23~24도 분포.

바다날씨(오전)			강수확률(%)		
방향	풍속	파고	지역	오전	오후
서해	동~남동 6~9	0.5~0.5	이천	10	20
남해	북동~동 7~12	1.0~2.0	수원	10	20
동해	남동~남 9~13	1.5~2.5	동두천	10	20
			이천	10	20
			양평	10	20
			강화	10	20

제공 Kwaterwww.630.co.kr

이천署, 한밤 부녀자 폭행·납치시도 둘 구속

이천경찰서는 30일 심야시간대 부녀자를 폭행, 납치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권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 씨 등은 지난 7월 28일 오전 3시 40분께 이천시 창전동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던 김모(40·여)씨를 뒤따라가 얼굴 등을 폭행한 뒤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18일 오전 4시 30분께 이천시 관고동 소재 한 금은방 유리벽을 깨고 귀금속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금까지 20여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 등은 사업 실패 후 채무에 시달려 오면서 변호관 등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상습 ‘손목치기’로 보험금 꿀꺽한 택시기사

안양판안경찰서는 좁은 골목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영업용 택시기사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과 안양 등지에서 영업용 택시를 몰다가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속도를 내 사고를 내는 일명 ‘칼치기’와 좁은 골목을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명목으로 5천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이정택 기자 jtle6151@khihoilbo.co.kr

방치 폐아스콘에 점령당한 도로

수원시·팔달구청, 출처도 몰라 안전대책 無 운전·보행자 위협

수원시 한 대로에 폐아스콘이 수개월 넘게 방치돼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를 관할하는 시와 구청은 폐아스콘의 출처도 모른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육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의 폐아스콘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다. 이곳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더욱이 폐아스콘은 차량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돼야 할 가림막은 물론 변변한 안전시설조차 없이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폐아스콘 옆으로 도로나 건축공사에 사용할 법한 흙과 모래도 쌓여 있어 사실상 도로가 공사 자재창고로 전락해 버린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량운전자들이 폐아스콘을 피해 힘겹게 우회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길을 지나는 시민들도 폐아스콘의 흉물스러운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에도 인근에는 보관기관을 표시해 놓거나 양해를 구하는 표지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시민 이모(40)씨는 “작년부터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금방 치우겠지 싶었는데 벌써 수개월째다. 시청이나 구청은



수원시 팔달구 육교사거리 인근의 한 도로에 폐아스콘이 방치돼 운전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와 구청 측은 해당 폐아스콘의 출처조차 모른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타

부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 일대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적지

대 있는 폐아스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출처를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강나희기자 her043k@khihoilbo.co.kr



문화가 꽃피는 마을!

LetsRun CCC. 인천남구가 있어 행복이 활짝~



경주가 있는 주말엔 건전한 레저 휴게공간으로 평일엔 무료로 배우는 문화학습 공간으로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인천남구가 가장 가까이서 지역주민의 행복한 내일을 서포트해 드립니다.

• LetsRun CCC. 인천남구문화센터 무료운영내선 : 032/230-2200 •

종목	운영요일	운영층	인원
노래교실	목요일 10:00~12:00	2층	-
꽃꽂이	목요일 15:00~17:00	3층	30명
비누공예	수요일 13:00~15:00	2층	30명
탁구교실	수요일 10:00~12:00	1층	30명

주소: 인천남구 남동로 100-100 (남동동) 렛츠런문화공감센터

문의: 032-230-2200

※ KRA 한국미사회의 LetsRun CCC. (수도권 33개소, 지방 7개소)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 다양한 지원사업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가장 가까운 도우미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LetsRun CCC는 KRA한국미사회가 운영하는 경외지역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 지나신 사행행하는 도박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백령 아트프로젝트’ 파행 책임자 문책을

“해운조합, 면세유 지원 받으려 총선 전에 국토위 소속 박상은 의원에 돈 봉투 전달”

작가들, 인천문화재단 성도
국·시비 지원 기약없이 지연
백령병원 리모델링도 안갯속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2014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의 파행 사태에 대해 참여 작가들이 3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사퇴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작가는 해당 프로젝트의 주체인 인천문화재단을 성토하고, 전시 파행의 이유로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쟁과 전쟁의 현장이었던 '인천', 그 중에서도 북과 인접해 있는 백령도를 배경으로 시대의 화두인 '평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각예술 프로젝트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의 결실을 높이 평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 총예산인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조차 불확실하다. 국·시비 사업 '백령아트프로젝트'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다, 올 봄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백령도로 가는 배편마저 줄어들어 작가들의 현지 답사 등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오픈했어야 할 프로젝트는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다. 여기에 백령아트프로젝트의 핵

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령병원 리모델링 사업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백령병원은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의 매칭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도 안 되는 7억 원의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한 인천문화재단이 평화미술 프로젝트를 총지휘해 오던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을 지난 7월 지역 예술인들과의 갈등과 위법행위 적발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면서 사업은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결국 원래대로라면 8월에 개최됐어야 할 평화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던 작가들이 '파행으로 치닫는 인천문화재단의 타락한 문화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외부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이들은 직위해제로 인해 사직할 이 전 아트플랫폼 관장을 '정치적 제물'로 지칭, "전시 파행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전시 속행을 위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인천문화재단 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변경 계획을 전달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지만 평화미술프로젝트가 지속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수녀 기자 circus22@khihoilbo.co.kr

김시전 前 회장 등 관계자들
4차 공판서 금품수수 증언

박 변호인 “해운계 5순위만
줬다니 말도 안된다” 반박

13일 인천지법서 재판 속개

‘해운 비리’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65·인천 중·동·용진)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속개된 박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시전(70)전 한국해운조합 회장은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들이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 박 의원에겐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식사라도 하라며 봉투를 건넸고 박 의원은 알겠느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수부 장관 출신, 해양공무원 출신에 이어 해운조합에 있어 5순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 의원에겐만 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해운조합은 크게 여객선과 화물선, 유조선 등



물벼락 맞아도 좋아... 인천 대학가 축제 한창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아시아게임이 한창인 인천에 또 하나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인하대 '비룡제'와 인천대의 가을 축제가 지난 29일부터 열려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30일 절음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물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하는 모습.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3가지로 업무가 분화돼 있고 면세유 공급은 여객선밖에 없으며, 해운조합이 여객선 외에 화물과 유조선에도 면세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을 설명했다.

해운조합이 박 의원을 만나야 했던 이유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해운조합은 이 같은 속원사업(면세유 공급) 해결을 위해 당선돼야 할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관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국토해양위 소속 박 의원을 만나기로 해운조합 이사회가 결의, 봉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의원은 피고인 신분을 망각하고 “2012년 전까지 저장 몇 번 만났습니까?”, “두 번 만났는데 친한 사이 아니잖아요?”, “(저에게)돈을 주기 위해 이사회를 했습니까?”라며 증인을 추궁해 재

판부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증인을 향해 “수사 기록을 보면 해운조합은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해운조합을 도와준 의원들을 도와야 한다며 명단을 뽑았고 10여 명이 이른다”며 흥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 외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수(60)전 해운조합 이사

장도 “해운조합 회장단의 초도 순시와 임원들의 출장비 등을 거둬 후원금을 마련해 박 의원에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신문 예정인 증인만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엽 기자 ditto@khihoilbo.co.kr

살해 의도 없어도 사망위험 있다면 살인죄 적용 가능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지 못한 데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안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씨는 올 3~4월 파주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백모(52)씨에게서 일당 20만 원을 약속받고 일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

안 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모 여관에 목

고 있던 중 이곳으로 찾아온 백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받지 못한 일당 문제로 말싸움을 벌여 흉기로 백 씨의 목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기소됐다.

안 씨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백 씨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인엽 기자 ditto@khihoilbo.co.kr

AG경기장 앞에서 “北 인공기 팔아요”... 조선족 2명 조사 뒤 귀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앞에서 북한의 인공기를 판매하려던 조선족 2명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인공기와 태극기를 펼쳐 놓고 판매하려 한 혐의로 조선족 A(3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역 2번출구 앞 인도에서 인공기 275개와 태극기 794개를 펼쳐 놓고 판매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문학경기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4강전 경기가 열렸다.

경찰은 “남성들이 인공기를 팔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재외교포인 이들이 국내 실정법을 잘 몰랐고 오로지 영리 목적에 인공기를 판매하려 했기 때문에 이적

목적성이 없다고 판단, 판매처 없겠다는 확인서 등만 받고 이들을 귀가시켰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추석 명절 때 고향인 중국에 갔다가 아시안게임 기간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공기를 다량 구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인공기는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들에게서 인공기를 전량 회수 조치했다. 이인엽 기자 ditto@khihoilbo.co.kr

“살인했어요” 신고해놓고 차비 달라는 뻔뻔한 20대

풀피리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신고해 놓고 출동한 경찰에게 차비 좀 꿰달라고 한 무개념의 20대가 결국 철창행.

용인서부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28)씨를 구속했는데,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식당에 중입

원 면접을 보러 갔다가 떨어지자 식당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죽인 사람과 함께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날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기동대와 형사, 과학수사팀, 지구대 순찰인력 등 10여 명이 긴급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A씨는 어이없게도 출동한 경찰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해야 경찰관이 출동할 것 같아 그랬다”며 “교통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윤인>

기호일보 평택·안성지사 개소식 및 현판식

창간 26주년을 맞은 기호일보
평택·안성지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기호일보가 앞으로도 평택·안성지역의 정론으로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기호일보 후원회

- 일 시 : 2014년 10월 2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평택시 평남로 1043(동삭동 692-9) 성진빌딩 202호
- 대표전화 : (031)652-996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기호일보 | 파리바게트

평택지사장 고성복 | 안성지사장 한상철 | 부국장 김진태 | 부장 윤영준



손의 발, 시원하게 골망 흔들나

손흥민, 내일 새벽 벤피카 상대 챔스 리그 2차전 출격
본선무대 데뷔골 정조준... '골대불운' 날릴 한방 기대



‘손터스타’ 손흥민(레버쿠젠)이 골대 불운의 악몽을 잊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마수같이 골’에 재도전한다.
손흥민이 활약하는 레버쿠젠(독일)은 10월 2일 오전 3시 45분(이하 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벤피카(포르투갈)를 상대로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C조 2차전에 나선다.
레버쿠젠과 벤피카는 나란히 조

별리그 1차전에서 패배를 맞은 터라 이번 2차전 승리가 절실하다. 레버쿠젠은 지난 17일 AS모노코와의 1차전 원정에서 0-1로 석패했고, 벤피카 역시 제니트(러시아)에 0-2로 물러섰다.

16강에 진출하려면 초반 승점 쌓기가 중요한 만큼 두 팀은 이번 2차전을 분위기 전환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팬들의 관심은 역시 손흥민의 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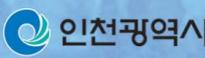
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첫 골 사냥에 쫓기고 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처음 맛본 손흥민은 8경기를 치르면서 득점 없이 도움 2개만 작성했다. 이때문에 손흥민은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2차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트렸던 감각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손흥민은 28일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시도한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터라 이번 경기를 통해 ‘골대 불운’을 시원하

게 날리겠다는 각오뿐이다.
레버쿠젠은 벤피카와 2012-2013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만나 치른 두 차례 맞대결에서 2패를 당했다. 설욕전이 되는 만큼 레버쿠젠으로선 손흥민의 한 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연합뉴스

레버쿠젠 손흥민이 지난 13일(한국시간) 바이아레나 구장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3라운드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 2-2로 맞선 후반 28분 팀의 세 번째 골을 터트린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 및 책의수도 성공기원

제3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

2014.10.18(토) 11:00~17:00
승도센트럴파크내 한옥마을 앞

시상내역: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인천광역시장상, 인천시의회의장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인천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등

주 제 “친환경 녹색도시”
참가부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제 공 도화지,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미술도구는 개별지참)
접 수 2014. 10. 17(금)까지
 (학교별 단체접수 또는 그리기대회 당일 현장접수 가능)
문의처 기호일보사(사업국 032-761-0007, 팩스 032-761-0015)
부대행사 축하공연 / 참여형레크리에이션(경품증정)
 미래도시 포토존(즉석카메라 운영) / 풍선아트 체험 / 나눔장터

주최·주관 기호일보 (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후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연구원

Global Innov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성남FC, 안방서 연승 노린다

전남·전북전 골 결정력 강화... 순위도약 찬스 활용



프로축구 성남FC가 홈 2연전에서 반등을 노린다. 성남FC는 1일 오후 7시 30분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29라운드를 치른다. 이어 3일 뒤인 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전북현대와 30라운드를 가진다.
성남은 현재 승점 24점으로

리그 10위를 기록 중이다. 12위인 부산아이파크와 승점 동률인 상태로 골득실에서 앞선 아슬아슬한 10위다. 10월 경기 결과로 11월 스플릿 일정까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기에 10월의 문을 여는 홈 2연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
가장 큰 과제는 골 결정력이다. 성남은 인천유나이티드와의 25라운드 2-0 승리 이후로 한 골차 패배 혹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잘 싸웠지만 마지막을 결정

짓는 한 방이 아쉬웠다.
홈 2연전을 앞두고 성남은 창끝을 좀 더 견고하게 다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팀 전체의 경기력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집중력을 더해 창끝을 날카롭게 만든다면 강팀을 상대로도 승산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학범 감독은 “위기는 곧 기회다. 더 이상 패배는 없다는 각오로 나와 내 선수들이 한마음이 돼 이번 홈 2연전을 준비했다. 팬 여러분의 응원이 더해진다면 선수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t23@khihoilbo.co.kr

국내 첫 '완전 오픈' 연천 남자프로 테니스대회 성료

국내 최초의 완전 오픈대회인 한 국내테니스프로리그 연천남자프로테니스 1차 대회가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구미시청 임현수(26)가 금천고 김태완을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전국고 윤재현이 아쉽게 3위를 차지했으며 패자전에서 전곡고 전성호가 3위를 기록했다.

연천군이 후원한 이번 연천프로 1차 대회는 지난 26~29일 4일 동안 81명의 선수가 참가해 본선 토너먼트 128드루와 격려전(콘솔레이션) 토너먼트 32드루로 진행됐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200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다.

아마추어 선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오픈대회 형식의 이번 대회에서 64명의 동호인 선수가 출전, 기량을 겨뤘으며 동호인 단식대회 남자부에서는 최종식(화정17)이 윤충식을 누르고 우승했다.
16드루로 진행된 여자부에선 탄별초교 조아현이 우승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장호철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호철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제5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돼 앞으로 2년간 도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도장애인체육회는 30일 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2014년 제1차 임의사회를 열고 장호철 사무처장 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가맹단체 임원인준(안) 등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신임 장호철 사무처장은 평택 출신으로 환경대를 졸업했으며 6~8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역도연맹 부회장, 경기도 장애인역도연맹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심언규 기자 sim@khihoilbo.co.kr

도 생활체육회 '2014 경기 줌마탐험대 해단식' 가져



경기도생활체육회는 30일 오후 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14 경기도 줌마탐험대 해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병국 사무처장, 박흥석 경기도등산연합회장, 박복근 탐험대장 및 탐험대원 25명을 비롯해 탐험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단식은 탐험 원정 모습을 담은 영상물 시청과 박복근 탐험대장의 원정 보고 및 탐험대원 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심언규 기자

오늘의 경기

◇1일(수) ▶프로야구=SK-한화(대전) 롯데-삼성(대구) 두산-KIA(광주·이상) 오후 6시 30분 ▶프로축구=경남-포항(오후 7시·양산종합운동장) 전북-제주(오후 7시·전주월드컵경기장) 성남-전남(오후 7시 30분·탄천종합운동장) 부산-상주(오후 7시 30분·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수원-인천(오후 7시 30분·수원월드컵경기장) ▶유도=전국실업선수권대회(오전 10시·동해실내체육관)